

2019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민속문화재분과 회의록

- 일 시 : 2019. 2. 12.(화) 14:00
- 장 소 : 문화재청 대회의실
- 출석위원 : 석대권(위원장 대행), 장석하, 박선희,
홍형순, 남해경, 김두규, 이정수(이상 7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제척사유 고지 및 의결방식 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 | | | |
|----|-----------------------------|--|
| 1 | 익산 김병순 고택 지정 | |
| 2 | 함안 무기연당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
| 3 |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주변 사도 개설 | |
| 4 | 함양 일두고택 주변 다목적 체육관 건립 | |
| 5 | 구례 운조루 고택 주변 축사(계사) 적법화 | |
| 6 | 안동 하회마을 주변 육상골재 채취 | |
| 7 | 안동 안동권씨 능동재사 주변 축사 증축 | |
| 8 | 영주 무섬마을 주변 수해복구 | |
| 9 | 양주 매곡리 고택 주변 벌채·조림 | |
| 10 | 예천 물체당 고택 주변 태양광설비 설치 | |
| 11 | 청송 성천댁 주변 임시창고 설치 | |
| 12 | 봉화 쌍벽당 주변 태양광시설 설치 | |
| 13 | 봉화 만산고택 주변 벌채·조림 | |
| 14 | 청도 윤림고택 주변 축사 증축 1 | |
| 15 | 청도 윤림고택 주변 축사 증축 2 | |
| 16 | 의성 소우당 주변 창고 신축 | |
| 17 | 영주 무섬마을 주변 허가사항 변경(농막→단독주택) | |
| 18 | 아산 외암마을 종합정비계획 보완 | |

【검토사항】

- | | | |
|----|-----------------|--|
| 19 | 봉화 오고당 고택 지정 검토 | |
| 20 | 영천 호수 종택 지정 검토 | |

【보고사항】

- | | | |
|----|----------------------------|--|
| 21 | 안동 하회마을 지정구역 조정(예고) 처리결과 | |
| 22 | 2019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 |

심 의 사 항

1. 익산 김병순 고택 지정

가. 제안사항

전북 익산시 함라면 소재 「익산 김병순 고택」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북 익산시 함라면 소재 전라북도 민속문화재 제23호 「익산 김안균 가옥」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승격 지정 신청한 사항임
-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2017.5.19) 결과 : 지정가치 있음
- 지정예고(2018.11.7.부터 30일간) : 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전라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익산 김병순 고택(益山 金炳順 古宅, Kim Byeong-sun's Historic House, Iksan)
 -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57
 - 소유자 : ○○○ 외
 - 수량 : 일괄(건물 7동, 토지 5,655.8㎡ <17필지>)
 - 건축물 지정 : 7동, 758.29㎡

명 칭		시 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익산 김안균 고택	안채	1922년	목조, 2고주 5량, 팔작지붕, 고패집	160.28㎡	○○○ 외 4인
	사랑채	1922년	목조, 1고주 5량, 팔작지붕, 고패집	124.22㎡	
	행랑채	1930년	목조, 5량가, 맞배지붕, 꺾인 ㄱ자집	161.57㎡	
	곳간채	1930년	목조, 3량가, 우진각지붕, 一자집	107.68㎡	
	광채	1930년	목조, 3량가, 맞배지붕, 一자집	177.12	
	실광	1930년	목조, 5량가, 맞배지붕, 一자집	22.51㎡	
	정려각	1930년	목조, 3량가, 맞배지붕, 一자집	4.91㎡	
계				758.29㎡	

- 토지 지정 면적 : 17필지, 5,655.8㎡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55	대	1,213	1,179.8	○○○ 외 4인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56	대	324	324	○○○ 외 4인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57	대	962	962	○○○ 외 4인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58	대	889	871.3	○○○ 외 4인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59	대	714	230.7	○○○ 외 4인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60	잡종지	112	91.6	○○○ 외 4인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65-1	대	701	6.9	○○○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66-1	대	555	43	익산시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67-1	대	648	34.6	○○○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68-1	전	76	24	○○○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69	대	284	284	○○○ 외 4인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70	대	89	89	○○○ 외 4인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71	대	1,236	1,060.2	○○○ 외 4인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52	대	117	15.8	익산시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53	대	117	24.3	익산시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54	전	247	22.3	익산시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776-1	도	12,705	392.3	국(건설부)
계			20,989	5,655.8	

라. 지정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 지정가치 있음

- 전라북도 민속문화재 제 23호인 김안균(金晏均, 1934-2004) 가옥은 근대 시기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에서 만석을 한다는 세 부자집 중의 한집이다. 이 집의 건축연대는 1920년대이지만, 건축의 규모나 형태면에서 근대시기에 상류층의 생활양식이나 건축양식 등을 볼 수 있는 특징을 가졌다.
- 우선 김안균 가옥은 현존하는 전북지방의 근대시기 주택 중 가장 큰 집으로 알려져 있고, 집 전체가 온전히 남아 있으며, 전통 한옥양식과 근대시기에 들어 온 서양 양식의 건축 기법 등을 동시에 사용하여 우리나라 건축 변천사에 중요한 자료이다.

- 그 다음은 조선후기로 오면서 경제적인 부의 축적에 따른 새로운 신분계층이라 할 수 있는 부농계층들이 그들의 재산 축적 과정을 볼 수 있고, 그들이 축적한 부를 토대로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면서 전통적 주택양식에 서양식 주택 양식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
- 끝으로 김안군 가옥에는 정리되지 않은 많은 농기구와 가제도구들이 보관되어 있다. 이들 자료들이 정리되면 집안에 많은 일꾼들을 두고 농사를 지은 부농들의 재래식 농기구뿐만 아니라 근대식 여러 농사 도구들을 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대의 새로운 농사법이나 농사 도구의 발전상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김안군 가옥은 함열리의 부농주거를 대표하는 조해영(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121호)가옥 · 이배원(전라북도 민속문화재 제37호)가옥 · 이집천 가옥과 함께 우리나라 근대 한옥이 변화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함열리의 다른 가옥들이 일부 훼손되거나 부분적으로 남아 있지만, 김안군 가옥은 거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 하고 있어. 이 집을 통하여 근대한옥의 양식과 지역사회에서 부농들의 재산축적 과정과 활동 그리고 근대 농업생산 양식 등을 해명을 해 볼 수 있는 학술성을 지니고 있어 근대시기 건물로서 국가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문화재위원> : 지정가치 있음

- 이 집은 우리나라 근대기인 1920년에 지어진 것으로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 시대 한국건축과 일본건축 양식이 적절히 혼합된 시대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조선시대의 양반가 양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장 면에서 부분적으로 궁궐양식과 일본식 수법을 도입한 보기 드문 건축이다. 특히 규모나 수법면에서 매우 정교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 건축적인 가치를 더하고 있다.
- 건축적인 면에서 공간의 규모가 커지면서 안채와 사랑채의 날개가 뒤로 빠져 확대되어 가는 모습이나 외행랑과 내외담, 행랑형 내외담, 사랑채와 안채가 동선을 분리하면서도 복도를 통해 연결한 점, 내부 공간간의 연결, 넓은 후원 등은 이 집의 특징이다. 벽체와 담장에서 적벽돌의 사용과 화장벽, 유리의 사용, 일식 담장 등의 장식에서도 역시 시대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목재의 치목과 가구법에서도 규모에 의한 웅장하고 과감한 처리 부분과 섬세한 조각과 조밀한 상세 등에서 시대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다.

- 민속적인 면에서는 마을이 전형적인 풍수형국을 따르고 있으며, 한 마을에 3부자집이 동시에 거주하였고 식객과 걸인들을 보살피고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왕래하였다는 이야기 거리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마을의 담장은 전통 토석담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법 면으로 볼 때 약 40여 가지의 양식을 지니고 있어 전통적인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다. 그리하여 건축적인 면이나 민속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story telling 소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건축적인 면이나 민속적인 면에서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 집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 지정가치 있음

- 김안군가옥은 근대기 우리나라 전통가옥이 변모되어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거사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통가옥의 공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유교적 질서체계 및 배치형식, 의장기법, 건축재료 등이 근대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가는 양상을 비교적 잘 표현해 주고 있어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가옥의 건립 년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창건시기 등 건축적 내력을 비교적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최초 건립당시와 비교해 큰 변형 없이 원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국가민속문화재로의 지정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부분적으로 퇴락되거나 훼손 위기에 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철저한 고증을 거쳐 본래의 모습으로의 회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 참고사항(익산시 의견)

- 함라 삼부자 집의 하나인 김안군 고택은 안채와 사랑채는 1922년 건립되었고, 행랑채는 1930년에 건립되어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나 개화기 전통가옥 형식에 근대의 건축기법이 가미되는 당시의 시대상과 건축적 특징, 건축양식의 시대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이 고택은 한국건축과 일본건축 양식이 혼합된 시대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간의 규모가 커지면서 안채와 사랑채의 날개가 뒤로 빠져 확대

되어 가는 모습이나 외행랑과 내외담, 행랑형 내외담, 사랑채와 안채의 온전한 동선분리와 내부에서의 복도를 통한 긴밀한 연결, 넓은 후원 등 대형 농가주택의 공간적 처리와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음.

- 김안균 고택의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는 매우 큰 것으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고 있으며 이 의견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민속문화재)로 지정 승격하여 보존·관리·활용하여 후대에 전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바. 검토의견

- 지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는 상황으로서 익산 김병순 고택(益山 金炳順 古宅, Kim Byeong-sun's Historic House, Iksan)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사. 의결사항

- 가결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

익산 김안균 가옥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자 : ○○○ 문화재위원

- 신청종별 : 국가민속문화재
- 소유자 : ○○○
- 신청인 : ○○○

1. 함열리 근대시기의 부농 집안의 가옥

김안균(金晏均, 1934-2004) 가옥은 전북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57에 있다. 함열리는 함라면에서 북쪽에 위치하고, 함라면은 남북으로 지맥이 뻗은 함라산을 뒤로 하고, 동쪽을 향하여 마을 구성되었다. 함열리는 전체적으로 서쪽이 높고 동남쪽이 낮은 지형이다.

마을은 함라산을 진산으로 하여 그 옆으로 부를 가져온다는 와우산이 마을 전체를 싸고 있고 앞으로 넓은 들이 펼쳐져 있다. 함라산 뒤로는 금강이 흐르고 앞으로는 함라산에서 시작한 교동천·수동천·안정천의 세 개의 실개천이 흐르고 있다. 마을은 세 개의 천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입지를 보이고 있다. 진산인 함라산의 산세는 장삼을 입고 염주를 두른 승려가 두 팔을 펼치고 마을을 감싸고 있는 형국으로 김안균 가옥이 위치한 곳은 승려가 시주를 받는 주발에 해당하는 곳으로 큰 부를 이룰 명당지라고 한다.

함열리는 임천조씨가 집성촌이루며 살았고, 주변에 남궁(南宮)·조(趙)·장(張)·염(廉)·박(朴)·김(金)·임(林)씨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1920년대 함열리를 포함한 주변지역에는 만석꾼의 거부가 3호, 천석 이상의 부호가 4호, 백석 이상의 부호가 20여호가 거주 하였으며, 그 중 만석꾼 3호가 함열리에 있었다. 이 마을은 부농 가옥을 중심으로 많은 문인과 예술인들이 끊이지 않고, 머물렀으며, 그 외에 많은 식객이 끊이지 않았다.

조선후기 새로운 부농의 등장은 기존의 양반체제가 붕괴되면서 경제력으로 신분상승하는 계층이라 볼 수 있다. 함열리는 가장 먼저 정착한 임천조씨가를 비롯하여 김해김씨 김안균의 6대조인 김원공 그리고 경주이씨 이배원의 아버지인 이석순이 차례로 입향하여 새로운 부농들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임천조씨 가문에서는 조해영의 4대조부인 조한기(1838년생)가 1900년(광무 4)에는 사천군수에 임명되었고, 그 후 정읍군수를 역임하였다. 윗대의 이런 집안의 기반을 발판

으로 조한기의 양자 조용규가 농장을 운영하여 부의 규모를 확장하였다. 조용규는 1923년 대규모의 농장을 설립하였다. 그는 익산·옥구 등지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였고, 농장의 운영과 함께 기업 활동도 같이 하였다. 조용규의 아들 조해영은 호남산업대주주, 이사 등을 지냈다.

이배원(1881-1949)의 아버지 이석순은 누룩사업을 하였고, 일제강점기 호남의 최고 자산가 중이 한 사람이었다. 이배원은 삼성농장을 운영하고, 전북축산 대주주, 황등산업 이사 등을 하였다.

이들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활동하였으며, 제조업·상업·정미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하여 부를 확장하였다.

함라마을 부농들은 그들의 부의 정도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였다. 이들 주택은 기존의 유교적인 질서에 따라 건축된 양반가 주택을 모방하면서도 새로운 주생활 방식을 수용하여 실생활 중심으로 평면 및 공간 등을 구성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함열리를 포함한 전라북도의 부농들은 수탈과 함께 유입된 근대의 문물들을 소극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건축에 적용하였다. 이들의 주거는 주변의 환경과 부의 정도에 따라 변화하였으며, 급변하는 시대적인 요구와 생활상의 변화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규범적인 틀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롭게 계획되었다.

함열리의 부농주거는 개항과 함께 근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근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함열리의 부농주거를 대표하는 조해영(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121호)가옥·김안균(전라북도 민속문화재 제23호)가옥·이배원(전라북도 민속문화재 제37호)가옥·이집천 가옥은 우리나라 근대 한옥이 변화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옥의 일반적인 특성과 특수성이 함께 나타난다.

2. 김안균 가옥의 건립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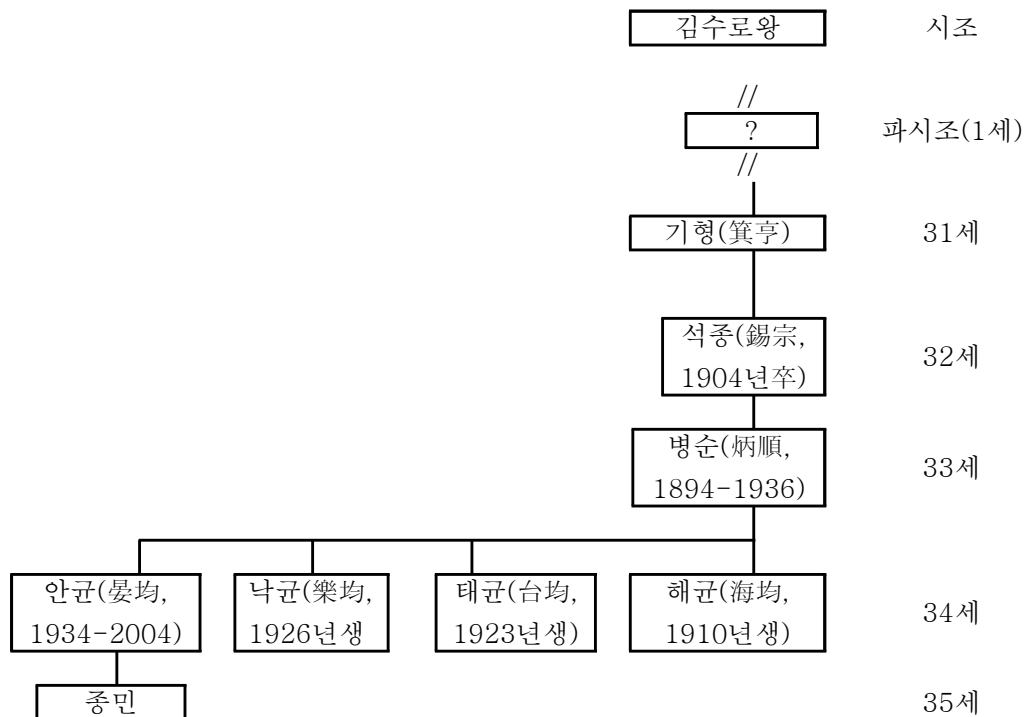
김안균(金晏均, 1934-2004) 가옥은 1986년 전라북도 민속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가옥이며, 익산에 남아 있는 고가 중에 가장 보존 상태가 양호한 곳이다. 대지면적 5,655.8㎡, 건축면적 766.42㎡로 규모뿐만 아니라 사용된 부재 하나하나에 사치스럽고 공들인 흔적들은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재력이 투입된 것을 알 수 있는 가옥이다.

1920년대 지어진 우리나라 상류가옥의 하나로 전통적인 상류 주택이 개화의 물결속에서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집은 김안균의 선대가 지은 것으로 상량문에 따르면 안채와 사랑채는 1922년(壬戌)에 건립되었고, 행랑채는 1930년(庚午)에 지었다.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김안균의 선조인 김원공은 가난한 선비였으나, 길에 쓰러진 승려를 치료해주고 그 보답으로 승려가 지정해 준 자리에 묘를 쓴 뒤 기울었던 가세가

회복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 후 김안균의 4대 조부인 김기형(金箕亨)이 1854년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후에 운봉현감을 지냈다. 그는 아버지가 병을 사망하자 ‘시묘살이’를 하였으며, 술과 잣을 심어 산소를 정성껏 가꾼 효자로 고종 때 정려를 하사받았으며, 그 정려각은 행랑채 끝에 이어진 낮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의 아들 석종(錫宗, 1904년卒)은 1873년(고종 10) 식년(式年) 사마시(司馬試)에 진사가 되었고, 그 후 통정대부(通政大夫)가 되었다.

〈김안균의 가계도〉



김안균가는 초기 김기형이 벼슬로 가문의 기반을 잡았으며, 그 후 김병순(金炳順, 1894-1936)이 농장과 기업 등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가문의 부를 더욱 확장시켰다. 김병순은 1926년에 함열면 와리에 함화농장을 설립하였다. 함화농장은 익산·김제·옥구 등에 많은 소작지를 두었고, 1,000여명의 소작인과 3명의 직원, 19명의 사음을 둔 대규모 농장이었다. 또한 전북축산(주)의 감사와 대주주를 역임하였다. 1931년 보동산과 동산을 합쳐 30만원, 토지는 8,000두락(논 1두락, 200평, 밭 1두락 150평)과 경성방직 회사와 동아일보 주식을 각각 50주와 8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김병순의 큰 아들 김해균(金海均, 1910년생)은 농장 운영과 함께 황등산업(주)의 이사와 1940년 설립한 대평건물(주)의 감사를 지냈다. 이 때 김씨는 민두식·박홍식 등과 함께 재계·실업계의 경성 재산가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 부를 확대시켰다. 그가 일제

강점기 보성전문학교(고려대 전신) 영어교사를 역임하였으며, 1936년 6월 13일 부친 김병순이 사망하자 근거지를 서울 혜정(현, 종로구 혜화동)으로 옮겨 생활하게 되었다. 이 후 함열 집은 4남인 김안균이 거주하게 되었다.

현재 전라북도 문화재명의 당사자인 김안균(金晏均, 1934-2004)은 이 지역 3대 부호 중의 하나인 만석꾼 김병순의 4남으로 2004년 타계 후 현재는 관리인이 집을 돌보고 있다.

〈김씨의 농장 설립 규모〉

농장명	농장주	설립일	사무소 소재지	토지소재지	소유경지					소작인	관리원	
					답	전	대	임야	계		직원	사슴
함화농장	김병순	1926.09	함열면 와리	익산 김제 옥구	543	20			563	1,088	3	19

3. 조사자 의견

전라북도 민속문화재 제 23호인 김안균(金晏均, 1934-2004) 가옥은 근대시기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에서 만석을 한다는 세 부자집 중의 한집이다. 이 집의 건축 연대는 1920년대이지만, 건축의 규모나 형태면에서 근대시기에 상류층의 생활양식이나 건축양식 등을 볼 수 있는 특징을 가졌다.

우선 김안균 가옥은 현존하는 전북지방의 근대시기 주택 중 가장 큰 집으로 알려져 있고, 집 전체가 온전히 남아 있으며, 전통 한옥양식과 근대시기에 들어 온 서양 양식의 건축 기법 등을 동시에 사용하여 우리나라 건축 변천사에 중요한 자료이다.

그 다음은 조선후기로 오면서 경제적인 부의 축적에 따른 새로운 신분계층이라 할 수 있는 부농계층들이 그들의 재산 축적 과정을 볼 수 있고, 그들이 축적한 부를 토대로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면서 전통적 주택양식에 서양식 주택 양식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

끝으로 김안균 가옥에는 정리되지 않은 많은 농기구와 가제도구들이 보관되어 있다. 이들 자료들이 정리되면 집안에 많은 일꾼들을 두고 농사를 지은 부농들의 채래식 농기구뿐만 아니라 근대식 여러 농사 도구들을 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대의 새로운 농사법이나 농사 도구의 발전상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김안균 가옥은 함열리의 부농주거를 대표하는 조해영(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121호)가옥 · 이배원(전라북도 민속문화재 제37호)가옥 · 이집천 가옥과 함께 우리나라 근대 한옥이 변화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함열리의 다른 가옥들이 일부 훼손되거나 부분적으로 남아 있지만, 김안균 가옥은 거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 하고 있어.

이 집을 통하여 근대한옥의 양식과 지역사회에서 부농들의 재산축적 과정과 활동 그리고 근대 농업생산 양식 등을 해명을 해 볼 수 있는 학술성을 지니고 있어 근대시기 건물로서 국가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대상문화재		
조사자	성 명	○ ○ ○	전공 분야	건축
	소 속	○ ○ ○	직위(직책)	○ ○ ○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문화재
	문화재 명칭	국가민속문화재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함라마일은 함라면의 북쪽에 위치고 있는데 임천 조씨의 집성촌이다. 지역적으로 마을은 금강을 통해 서해로 진출할 수 있는 수로 교통의 요충지여서 근대에 상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한 연유로 1920년대 함라마일을 포함한 주변지역에서 만석꾼 3호가 있었는데 김안균가옥, 조해영 가옥, 이배원 가옥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마을에는 천석꾼이 4집, 백석 이상의 부호가 20여 집이 거주하였다고 한다. 함라마일은 풍수에 입각하여 함라산을 진산으로 하고 마을로 지나가는 세 개의 천(안정천, 수동천, 교동천) 중에서 수동천이 중심부를 흐르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형국이다. 이 마을은 장삼을 입고 염주를 두른 스님이 두 팔을 벌려 마을을 감싸는 형국인데 3부자 집은 스님이 시주를 받는 주발에 해당하는 곳이라 하여 큰 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라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마을의 부자들은 춘궁기에 식객과 걸인들을 돌보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며 문화와 예술을 좋아하여 많은 문인들과 예술인들(명창, 영화인 등)이 왕래하였다고 한다. 특히 마을 중앙으로 난 길에서는 장이 서서 김안균가옥 앞에서는 가판을 두고 장판을 벌였다고 한다. 이 마을(수동마을) 중앙에 김안균가옥이 조해영가옥, 이배원가옥과 더불어 위치하고 있다.
	연혁·유래 및 특징	김안균의 가계는 그의 6대조인 김원공이 이 마을에 정착하였으며 4대조인 김기형은 조선후기의 효자로서 운봉현감을 지냈다고 한다. 그의 부친인 김병순은 전북축산의 감사 및 대주주로 많은 부를 형성하였다고 한다. 김안균 가옥은 1922년 그의 부친인 김병순이 안채와 사랑채를 건축하였고, 1930년에는 대문간채와 행랑채를 건축하였다고 한다. 이

	는 상량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집의 남쪽에는 동서로 가로지르는 마을길이 있고 마을길 남쪽은 개천에 면해 있었으나 지금은 복개되어 있다. 배치는 행랑채와 사랑채, 안채, 아래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랑채 끝에 정려각이 세워져 있다. 행랑채는 남쪽 도로를 따라 좌우로 길게 위치하고 있다. 대문을 들어서면 담장으로 둘러진 작은 전정공간이 나타나고 오른쪽에 안채로 출입하는 중문이 있으며 한쪽에는 사랑채로 통하는 또 다른 중문이 있다. 안채는 방과 대청, 부엌으로 구성되었는데 본래 一자형의 집이었는데 뒤에 덧달아내어 ㄱ자 형상을 하고 있다. 구조는 잘 다듬어진 장대석 기단위에 주초를 놓고 방형 기둥을 세웠으며 팔작지붕을 얹었다. 사랑채는 안채와 거의 대청을 이루면서 남향을 하고 있다. 평면은 ㄱ자 형상으로 방과 대청, 부엌으로 구성되었다. 구조는 안채와 마찬가지로 잘 다듬어진 장대석 기단위에 주초를 놓고 방형 기둥을 세웠으며 팔작지붕을 얹었다. 사랑채와 안채는 내부에서는 복도를 통해 왕래할 수 있다. 안채와 사랑채의 날개가 모두 뒤쪽으로 빠져 나간 것이 특징적이다. 세부적인 양식에서 안채와 사랑채는 익공형식이며 조각은 당초문양을 부조로 조각하였고 부분적으로 궁궐건축 양식을 도입하였다. 창호는 흑창까지 있는 삼중창으로 설치하였는데 단열을 고려한 보기 드문 양식이다. 안채와 사랑채의 배면과 측면에는 근대기 한옥에서 많이 사용했던 유리를 사용했으며 사랑채와 안채 사이는 붉은 벽돌로 내·외벽을 설치하였다. 굴뚝과 화장벽 등에서 벽돌의 사용하여 근대건축의 모습을 엿볼 수 있기도 하다. 화장벽은 전벽돌이 아닌 색이 있는 시멘트를 이용해 문양을 만들었다. 곡식창고는 회벽의 상하 인방에 사선으로 조밀하게 가새를 대서 처리하였다. 대문 안쪽의 담장은 기둥과 도리가 있는 가구식 회벽으로 벽체를 만들고 내외에 버팀목을 설치하였으며 왜식기와를 얹은 모습이 일본 주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이다. 이 집은 조선 말기의 양반가 형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구조 및 의장 등에서 궁궐건축 양식과 일본식 수법을 부분적으로 가미하였다. 부재의 가공에 많은 정성을 들인 집인데 수법으로 볼 때 조해영 가옥도 같은 형식이다. 이로 미루어 같은 목수가 건축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으나 같은 3부자 집인 이배원가옥과는 차이가 있다.
--	--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국가민속문화재)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의식주, 사회생활, 민속, 신앙 등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것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지정 가치 및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 - 의식주에 관한 것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마을의 story telling 거리 활용(풍수형국, 3부자집, 노블리스 오블리제, 명창·영화인 등의 방문 등) - 담장 활용 - 문화재 원형 복원(궁궐양식, 일본양식 등) - 주변 문화재 활용(함라향교, 관아터 등)

종합의견		이 집은 우리나라 근대기인 1920년에 지어진 것으로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 시대 한국건축과 일본건축 양식이 적절히 혼합된 시대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조선시대의 양반가 양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장 면에서 부분적으로 궁궐양식과 일본식 수법을 도입한 보기 드문 건축이다. 특히 규모나 수법 면에서 매우 정교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 건축적인 가치를 더하고 있다. 건축적인 면에서 공간의 규모가 커지면서 안채와 사랑채의 날개가 뒤로 빠져 확대되어 가는 모습이나 외행랑과 내외담, 행랑형 내외담, 사랑채와 안채가 동선을 분리하면서도 복도를 통해 연결한 점, 내부 공간간의 연결, 넓은 후원 등은 이 집의 특징이다. 벽체와 담장에서 적벽돌의 사용과 화장벽, 유리의 사용, 일식 담장 등의 장식에서도 역시 시대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목재의 치목과 가구법에서도 규모에 의한 웅장하고 과감한 처리부분과 섬세한 조각과 조밀한 상세 등에서 시대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다. 민속적인 면에서는 마을이 전형적인 풍수형국을 따르고 있으며, 한 마을에 3부자집이 동시에 거주하였고 식객과 걸인들을 보살피고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왕래하였다는 이야기 거리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마을의 담장은 전통 토석담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법
------	--	--

면으로 볼 때 약 40여 가지의 양식을 지니고 있어 전통적인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다. 그리하여 건축적인 면이나 민속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story telling 소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건축적인 면이나 민속적인 면에서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 집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된다.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5월 6일

제출자

○○○

문화재청장 귀하

「익산(益山) 김안균가옥(金晏均家屋)」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조사 의견서

조사자 : ○○○ 문화재전문위원

1. 대상유적 : 익산 김안균가옥(전라북도 민속문화재 제23호)

2.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57번지 일원

3. 창건과 변천

김안균 가옥은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함라마을 내 위치하고 있다. 함라마을은 남북방향으로 지맥이 길게 뻗은 함라산을 진산으로 하고 동쪽을 향하여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마을 앞으로는 넓은 들이 펼쳐져 있으며 그 사이를 함라산에서 발원한 교동천, 수동천, 안정천의 세 개천이 지나고 있는 등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입지를 보이고 있다.

전언(傳言)에 의하며 함라산의 형세가 장삼을 입고 염주를 두른 승려가 두 팔을 펼치고 마을을 감싸고 있는 형국이며, 김안균가옥이 위치한 곳이 바로 승려가 시주를 받는 주발에 해당하는 곳으로 큰 부를 이룰 명당지라고 전하고 있다. 관련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과거 마을 일대에는 많은 부농들이 거주하였는데 만석꾼이 3호, 천석 이상의 부호가 4호, 백석 이상의 부호가 20여호가 있었다고 한다. 현재 함라마을을 대표하는 부농가옥으로서 김인균가옥을 비롯하여 조해영가옥(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21호), 이배원가옥(익산시 향토유적 제10호)등이 남아 있다. 또한, 가옥의 의장 수법 등에서 조해영가옥과 김안균가옥은 동일 목수에 의해 건축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안균가옥은 전라북도에서 규모가 가장 크며, 익산에 남아 있는 고택 중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하여 1986년 9월 8일 전라북도 민속문화재 제23호로 보존, 관리되어 오고 있다.

함라마을은 최초 임천조씨의 집성촌으로 형성된 이래, 남궁(南宮)·조(趙)·장(張)·김(金) 등 여러 성씨들이 자리 잡게 되었으며, 김안균 가문은 김안균의 6대 조부인 김원공이 입향하면서 거주하게 되었고 4대 조부인 김기형(金箕亨)이 벼슬로 가문의 기반을 잡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함라마을에는 근대기를 거치면서 부농(富農)들이 점차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며, 김안균가옥 역시 이 시기에 건립된 일종의 부농주거로서 상량(上樑)기록들을 근거로 하면, 1922년(안채, 사랑채 등)과 1930년(문간, 행랑채 등)에 신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초 가옥을 건립한 인물은 김안균(金晏均, 1934~2004)의 부친인 김병순(金炳順, 1894~1936)으로 이 지역 3대 부호 중의 하나로서 당시 만석꾼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농장과 기업 등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가문의 부를 더욱 확장시키게 된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김안균가옥은 1986년 전라북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안채, 사랑채를 비롯하여 행랑채, 담장 등 가옥의 일곽에 대한 크고 작은 보수 공사가 있어 왔다.

4. 건축구조 및 양식

김안군가옥은 함라산을 뒤로 하는 장방형의 넓은 대지에 남향을 하여 자리잡고 있다. 가옥 앞으로는 동서로 가로지르는 마을길에 접해 있으나, 과거에는 개울이 흐르고 이를 따라 골목길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가옥 내 각 공간은 크게 안채영역, 사랑채영역, 문간·행랑채영역, 광채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가옥 앞의 마을길을 따라 광, 대문, 행랑, 바깥사랑으로 구성된 행랑채가 동서방향으로 길게 늘어서 있고 그 뒤로 좌측과 우측 편에 안채와 사랑채가 자리 잡고 있다. 안채와 사랑채 뒤편으로 비교적 넓은 공간의 텃밭과 많은 조경수들이 심어져 있으며, 또한 안채 좌측으로는 별도로 독립된 공간으로 마련한 또 다른 광채가 위치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 광채 등 각 영역은 별도의 독립된 마당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가옥 내부로 진입을 위해 행랑채 대문을 들어서면, 그 앞에 차면담을 두어 출입하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시선을 차단해 주고 있고 담장의 서쪽과 동쪽 편에는 각각 중문 1개소씩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안채와 사랑채로 진입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차면담 뒤편으로는 동서방향으로 길게 배치한 행랑 형식의 저장공간을 두었는데, 이는 전면의 행랑채와 안채·사랑채 영역을 명확히 구분함과 동시에 차면담과 함께 안채 및 사랑채로부터의 직접적인 시선차단과 동선의 분절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채와 사랑채 영역 사이에는 일종의 내외담을 조적(붉은벽돌) 담장으로 쌓아 남녀의 영역을 서로 분리시키는 등 전통주거에서의 유교적 질서체계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조적 담장 중간에는 협문을 내어 두 영역 사이를 오갈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안채와 사랑채 두 건물을 연결하는 복도를 두어 외부가 아닌 실내에서 직접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등 실생활의 편의를 추구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이와 같이 가옥 내 각 공간들이 내외담, 차면담, 중문, 등의 전통적 건축 요소들을 통해 별도의 독립된 영역을 구성하면서도 연결 복도, 내외담의 협문 등을 설치하여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배치)된 것은 건립 당시인 근대기의 시대적 상황 및 생활상 등이 건축물에 반영된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행랑채 좌측 끝으로 가옥 앞의 가로에 면해 김안군의 4대 조부인 김기형(金箕亨)을 기리는 정려각(旌閭閣)이 낮은 담장으로 구획되어 별도의 영역을 이루고 있다. 가옥을 구성하고 있는 각 영역별 구성공간들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안채는 여성들의 주생활공간으로 一자형 몸체의 배면 우측 편으로 채를 덧 달아내어 전체적으로는 ㄱ자형의 평면을 구성 하고 있다. 또한, 몸체 우측면의 우측 퇴칸 부분에는 목구조의 복도를 가설하여 내부에서 직접 사랑채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채의 평면 구성은 가운데 안대청을 중심으로 좌측에 부엌과 안방이 위치하고 우측으로는 건넌방, 그 뒤로는 침방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들 각 실들은 전면에 설치한 텃마루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지붕은 홑처마의 팔작지붕이며 가구는 기본적인

로 2고주 5량으로 구성 하였지만, 대청마루에서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1고주 5량으로 처리 하였다. 기둥은 내·외진주 모두 방주를 사용하였고 기둥 상부에는 익공으로 공포를 구성하였으며 내부에서는 그 단부를 보아지로 처리하여 상부의 보를 받치게 하였다. 킷기둥에서는 창방 뿔목을 익공형태로 초각하였고 도리를 받치는 장여 역시 뿔목을 익공형태로 처리하여 전체적으로 이익공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리는 주심도리를 굴도리, 나머지는 모두 모를 죽인 납도리를 사용하였으며, 종보 위의 대공은 기본적으로 판대공을 설치하였지만, 대청 상부에서는 파련대공 형태로 가공한 것을 사용하였다. 선자연의 경우 내목과 외목의 열이 서로 일치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내목 선자의 경우 원목이 아닌 판재를 이용한 소위, 가선자로 처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안채에 사용된 창호는 전통 문양과 함께 다양한 문양의 문살이 혼합되어 있으며, 특히 몸채의 우측면 툇마루 끝에 외기에 접해 설치한 미서기창은 유리를 끼워 마감하였다.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는 붉은 벽돌로 쌓은 내외담이 위치하고 있으며, 내외담 중간에는 협문을 내어 서로 통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들 내외담 및 협문의 축조방식과 치장기법 등은 일반적인 가옥이 아닌 궁궐건축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 근대기 부농들의 주거건축에서 행해졌던 시대적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사랑채는 남성들의 생활공간으로서 一자형 몸채의 배면 좌측 편에 채를 덧 달아낸 ㄱ자형 평면을 취하고 있고 몸채의 좌측 측면 끝부분에는 복도를 통해 안채와 연결되어 있는 등 전체적으로 안채와 대청을 이루어 배치하고 있다. 다만, 안채와 달리 몸채의 우측 정면에 누마루를 달아낸 내루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사랑채의 평면구성은 가운데 사랑대청을 중심으로 좌측에 2칸의 온돌방, 우측에는 1칸의 온돌방과 누마루를 두었으며 좌측 온돌방 뒤로는 침방이 위치하고 있다. 가구는 기본적으로 1고주 5량을 구성하고 있지만, 누마루는 3량으로 하여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었다. 기둥은 안채와 같이 내·외진주 모두 방주를 사용하였고 기둥 상부에는 익공으로 공포를 구성하였으며 내부에서는 그 단부를 보아지로 처리하여 상부의 보를 받치게 하였다. 킷기둥에서는 창방 뿔목을 익공형태로 초각하였으며, 도리를 받치는 장여 역시 뿔목을 익공형태로 처리하여 전체적으로는 이익공의 모습을 보이게 하였다. 보머리의 경우 안채에서는 단순하게 사절한 반면, 사랑채에서는 익공형태로 초각을 하여 장식처리 하였고 선자연은 안채에서와 같이 내목에서는 가선자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사랑채 정면의 하인방 아래 초석 사이에는 붉은 벽돌로 고막이벽을 설치하였으며 중간에는 十자형으로 통기구를 뚫었다. 창호는 안채에서와 같이 전통 문양의 살대와 함께 다양한 문양의 문살이 혼합되어 있으며, 특히 후면 툇마루의 외기에 접해 설치한 미서기창은 다양한 색유리를 끼워 장식, 마감하였다. 또한, 온돌방에 사용된 창호는 기본적으로 쌍여닫이문을 설치하였으나, 문선이 설치되는 부분을 심벽이 아닌 장지문으로 마감하여 필요에 따라 들어열개문으로 하여 실 전면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쌍여닫이문과 함께

영창, 흑창 등의 미닫이 창호가 설치되는 것과 달리 4짝 미서기창으로만 처리한 것 등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사랑채의 지붕은 겹처마의 팔작지붕으로 하였으며 처마 끝단에는 함석으로 차양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후에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 행랑채는 크게 광, 대문, 온돌방, 마루, 아궁이, 바깥사랑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화강석 장대석 기단위에 방형 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웠다. 외부 벽체는 먼저 강돌을 놓고 상부에 다시 붉은 벽돌을 쌓아 올렸으며 나머지 윗부분은 회벽으로 마감하였다. 가구는 2평주 5량, 소로수장집으로 하였으며 지붕은 홑처마 맞배지붕으로 처리하였다. 행랑채는 전면 10칸 반, 측면 1칸 반 규모의 방과 마루방 등으로 구성된 광채와 예각을 이루어 ㄱ자로 연결되어 있다.
- 이밖에, 안채 좌측 편으로는 마당을 사이에 두고 곡식을 보관 하였던 별도의 광채가 위치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과거에 사용되었던 농기구 등이 보관되어 있다. 벽체 내부에는 사선으로 조밀하게 가새를 설치하였는데, 거주자에 의하면 이는 곡식 가마니로 인해 벽체가 넘어가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한다.
- 안채와 사랑채 정면으로 마당을 사이에 두고 행랑 형식의 저장 공간이 동서 방향으로 길게 늘어서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저장 공간인 동시에 뒤쪽에 세워진 차면담과 함께 외부에서 가옥 내로 진입 시 동선과 시선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조는 3량의 민도리집이고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구성하였으나, 지붕의 전·후 출침 길이를 다르게 처리한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그 앞에 세워진 일식 평기와 지붕의 차면담 등은 전체적인 입면구성과 의장기법으로 보아 근대기 일본풍의 건축 외관이 혼용된 것으로 보인다.

5. 지정가치

- 김안군가옥은 근대기 우리나라 전통가옥이 변모되어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거사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통가옥의 공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유교적 질서체계 및 배치형식, 의장기법, 건축재료 등이 근대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가는 양상을 비교적 잘 표현해 주고 있어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가옥의 건립 년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창건시기 등 건축적 내력을 비교적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최초 건립당시와 비교해 큰 변형 없이 원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국가민속문화재로의 지정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부분적으로 퇴락되거나 훼손 위기에 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철저한 고증을 거쳐 본래의 모습으로의 회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함안 무기연당 주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가. 제안사항

경남 함안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08호 「함안 무기연당」 주변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함안 무기연당 주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2구역(지정구역에서 470m 이격)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2구역 :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08호 「함안 무기연당」
 - 소 재 지 : 경남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 966
- (3) 신청위치 : 경남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 ○ ○ ○
- (4) 신청내용 : 기존 공장 지붕 상단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 설치면적 : 921.23㎡(모듈 총 462장)
 - 설치높이 : 3.78m(기존 건축물 높이: 7.2m), 설치후 총높이 11.28m
 - ※ 기존 건축물(공장) 현황 : 지상 1층, 7개동, 연면적 1,054.5㎡, 높이 7.5m, 철골조적조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전문위원 ○○○/ 2019. 1. 14.)

- 국가민속문화재 제208호 함안 무기연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 내 기존 공장(경사지붕 최고높이 7.2m)의 지붕에 3.78m 높이의 태양광발전설비(921.23㎡, 총 462장)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자연지형(구릉 등)의 훼손이 없고 또한 주변으로 공장 및 창고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해당 문화재에서 직접적으로 조망되지 않아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가결

3.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주변 사도 개설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96호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주변 사도 개설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주변 사도 개설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3구역(지정구역에서 110~260m 이격)으로 개별심의사항에 해당하여 현상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3구역 : 평지붕 14m, 경사지붕 18m 이하 / 공통사항 : 도로 신설·확장 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96호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43-1
- (3) 신청위치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 ○ ○
- (4) 신청내용 : 주택허가 예정부지 사도 개설
 - 도로폭 : 6~8m
 - 연장 : 461.23m
 - L형 옹벽 : 2~3.5m, 585m(양안)
 - 포장 : 아스콘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 ○ ○/ 2019. 1. 18.)

- 본 신청 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 제2차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2018. 4. 10)에 ‘머섯재배사 2동 및 관리사 신축, 진입도로 개설’건으로 상정된 바 있었음
- 폭 6~8m, 연장 461.23m의 사도 개설 사업으로 높이 2.0~3.5m 옹벽 585m(양안) 등이 수반됨

- 도로 개설로 인한 문화재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위원회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단독주택 8동 신축,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예정 등)

마. 의결사항

- 보류
 - 추후 주택신축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4. 함양 일두고택 주변 다목적 체육관 건립

가. 제안사항

경남 함양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86호 「함양 일두고택」 주변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함양 일두고택 주변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4구역(지정구역에서 260m 이격)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4구역 :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함양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86호 「함양 일두고택」
 - 소재지 : 경남 함양군 개평리 262-1
- (3) 신청위치 : 경남 함양군 개평리 51-2 외 3필지
- (4) 신청내용 : 다목적 체육관 건립
 - 대지면적 : 6,266㎡
 - 건축규모 : 지상 1층, 건축면적 1,044㎡, 연면적 906.4㎡, 높이 16.45m(성토고 1.5m 포함 시 17.95m)
 - 건축구조 : 철골조
 - 기타 : 전통기와, 전통한식외장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 2019. 1. 17.)

- 신청지는 일두고택에서 동쪽으로 260m 떨어진 마을 입구에 위치해 있고, 현실계대로 체육관을 신축할 경우 문화재로부터 외부조망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다만, 일두고택과 신청지 사이의 조망축에 다른 민가가 있어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조경식수 등에 의해 차폐효과를 확보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설계 보완 후 재신청하도록 함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의견과 같이 설계변경하여 체육관 건물을 민가쪽으로 배치 조정하여 재신청한 사안임. 다만, 건축물 외관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건축물 외관에 대해 관계전문가 자문을 득하여 시공할 것

5. 구례 운조루 고택 주변 축사(계사) 적법화

가. 제안사항

전남 구례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8호 「구례 운조루 고택」 주변 축사(계사) 적법화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례 운조루 고택 주변 축사(계사) 적법화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1구역(지정구역에서 488m 이격)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 : 개별심의 / 공통사항 : 동·식물시설 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8호 「구례 운조루 고택」
 - 소 재 지 :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103
- (3) 신청위치 :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 ○ ○
- (4) 신청내용 : 축사(계사) 적법화
 - 대지면적 : 646㎡
 - 건축규모 : 지상 1층, 건축면적 248㎡, 폭9m×길이27m×높이4m
 - 건축구조 : 비닐하우스(강파이프조)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 2019. 1. 24.)

- 신청 계사는 운조루 고택에서 남서방향으로 488m 떨어져 있고, 운조루 고택의 전면 건물 및 수목들로 인하여 직접 조망되지 않으며, 케이지 사육이 아닌 육계용 방목 사육으로 악취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문화재의 경관 및 자연환경적 요소를 저해할 우려가 적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해당 지역은 「구례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법화 조치대상인 본 계사를 허가하더라도 다른 축사 시설이 들어설 여지는 없다고 판단됨

마. 검토의견

-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방안”(2018. 7. 26. 발표)에 따른 사항임

바. 의결사항

- 가결

6. 안동 하회마을 주변 육상골재 채취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풍천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주변 ‘육상골재 채취’를 위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주변 ‘육상골재 채취’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보존지역, 이격거리 120m)에 해당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
- (4) 신청내용 : 육상골재 채취 51,267m³
 - 신청면적 : 18,507m²
 - 채취량 : 51,267m³(6m 깊이)
 - 세부내용 : 육상골재(답) 채취 후 인근 공사장의 토사로 복구

*신청부지 내 발생 우수는 수로관 설치하여 인근 전,답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함

라. 검토의견(문화재청 세계유산팀)

- 사업 대상(예정)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유산 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므로,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마.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2019. 1. 30.)

- 해당 부지는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으로 제방으로 둘러싸여 직접 가시되지 않으나 세계유산 등재사항 중 하나인 농경지(Core Zone)에 대한 직접적인 변형에 대하여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

바. 의결사항

- 부결
 - 세계유산 경관 저해

7. 안동 안동권씨 능동재사 주변 축사 증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83호 「안동 안동권씨 능동재사」 주변 ‘축사 증축’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183호 「안동 안동권씨 능동재사」 주변 축사 증축 행위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2구역(공통사항:동물및식물관련시설 개별심의, 이격거리 375m)에 해당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83호 「안동 안동권씨 능동재사」
 -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일대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
- (4) 신청내용 : 축사 증축 827.79㎡(적법화)
 - 대지면적 : 6,158㎡

동별	기 존(㎡)		증 축(㎡)		소 계	비 고
1동	축사	1,198.32	축사	133.20	1,331.52	
2동	축사	352	축사	288.70	640.70	
3동	사료창고	197.75	사료창고	274.46	472.21	
4동	-	-	퇴비사	113.88	113.88	
5동	-	-	창고	17.55	17.55	
합계		1,748.07		827.79	2,575.86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 / 2019. 1. 16.)

- 축사가 능동재사의 배면이 되는 임야 너머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 문화재에서 직접적으로 조망되지 않으며 또한 적법화 대상 공간이 부속공간임을 감안할 때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가결

8. 영주 무섬마을 주변 수해복구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주변 ‘수해 복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주변 ‘수해복구’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개별심의, 이격거리 100m)에 해당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영주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 소재지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732-20일대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탄산리 766일원
- (4) 신청내용 : 수해복구공사
 - 사업면적 : $A=11,638\text{m}^2$, $L=411.6\text{m}$
 - 토공 : 절토:49,437 m^3 , 성토:11,431 m^3
 - 호안공 : 매트리스 돌망태:7,083 m^2
 - 집수정 2개소, 배수관 71m, 배수관날개벽 6개소, 콘크리트포장 144 m^2 , 이중벽관 17m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 / 2019. 1. 16.)

- 동 구간은 지난 해 폭우로 유실된 부분으로 사업범위는 총 길이 411.6m, 면적 11,638 m^2 이며 무섬마을과의 사이에 임야가 위치하고 있고 마을 진입부에서도 직접적으로 조망되지 않는 등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방 축조로 인한 내성천 및 주변 자연경관 등의 훼손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공사 방식(제방의 법면 처리 등)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사선형이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전문가 자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9. 양주 매곡리 고택 주변 벌채·조림

가. 제안사항

경기도 양주시 남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28호 「양주 매곡리 고택」 주변 ‘벌채·조림 사업’을 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128호 양주 매곡리 고택 주변 벌채·조림 사업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1구역(개별심의, 이격거리 30m)에 해당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28호 「양주 매곡리 고택」
 -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남면 282-3
- (3) 신청위치 :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
- (4) 신청내용 : 벌채·조림
 - 규모 : 입목벌채 1.7ha, 잣나무(소묘) 3,000본 식재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 / 2019. 1. 25.)

- 신청사업은 2017년에 이어서 문화재경계구역에서 30m 이격된 매곡리 산17번지(1구역/17,000㎡)일대를 벌채·조림하고자 하는 사업임
- 동 신청지는 우백호의 일부지역으로, 해당 지역을 완전 벌채하고 잣나무 3,000주 식재를 계획하고 있어 역사문화환경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숲가꾸기 사업에 준하여 시행하는 것이 역사문화환경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10. 예천 물체당 고택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예천군 예천읍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74호 「예천 물체당 고택」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174호 「예천 물체당 고택」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3구역(공통사항:3M 이상의 절성토 수반, 이격거리 367m)에 해당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동 안건은 1차례(‘18. 12월) 민속분과 문화재위원회에 부의되었으나, ‘역사문화환경 저해’의 사유로 부결되었고,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다시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74호 「예천 물체당 고택」
 - 소 재 지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읍현리 142번지
- (3) 신청위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읍현리 ○ ○ ○
- (4) 신청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구 분	기존 신청 (‘18년 12월)	금회 신청	비 고
대지면적	6,491m ²	6,491m ²	
모듈설치	2,028m ²	2,028m ²	
경계휨스	339m(H=2.0m)	339m(H=2.0m)	
절토량	8,866m ³	8,866m ³	
성토량	1,318m ³	1,318m ³	
차폐식재	사철나무 148주(H=1.5m) 개나리 296주(H=1.5m) 조경석 56m 생태블럭 80m	<u>서양측백 304주(H=2.0m)</u> <u>개나리 798주(H=2.0m)</u> 조경석 56m 생태블럭 80m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 / 2018.11.26.)

- 태양광모듈 설치로 인해 임야 정상부에 형질변경(절,성토 후 부지조성)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절토되는 높이가 최고 3.5M에 이르게 되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 당초 신청안과 비교하여 전면도로에서의 차폐방안을 보강하여 제출한 것으로 절토량 및 높이에 대한 변화는 없어 이에 관해 문화재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

바.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11. 청송 성천댐 주변 임시창고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72호 「청송 성천댐」 주변 가설건축물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172호 「청송 성천댐」 주변 ‘가설건축물 설치’가 역사문화 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제1구역(개별심의, 이격거리 450m)에 해당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72호 「청송 성천댐」
 - 소 재 지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1346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 ○ ○
- (4) 신청내용 : 가설건축물(임시창고) 설치
 - 대지면적 : 1,091㎡
 - 건축면적/연면적 : 115.2㎡(28.8㎡X4동)/115.2㎡(28.8㎡X4동)
 - ※ 건물 규모(가로 X 세로 X 높이) = 12.2m X 2.4m X 5m

라. 검토의견

- 해당 위치는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으로 청송 성천댐과 450m 이격되어 있으며, 해당 문화재와의 사이에 산이 있고 또한 지대가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역사 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가결

12. 봉화 쌍벽당 종택 주변 태양광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주변 ‘태양광시설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170호 「봉화 쌍벽당」 주변 ‘태양광시설 설치’가 역사문화 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제1구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이격거리 10m)에 해당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 소재지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148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
- (4) 신청내용 : 태양광 시설 설치
 - 설치위치 : 단독주택 옥상
 - 설치내용 : 태양광시설 11.79㎡ 설치(모듈 8장 설치)

라. 검토의견

- 해당 위치는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으로 ‘봉화 쌍벽당 종택’과 이격거리가 짧아 문화재로부터 직접 조망되고 있어 문화재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13. 봉화 만산고택 주변 벌채·조림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79호 「봉화 만산 고택」 주변 ‘벌채·조림 사업’을 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279호 「봉화 만산 고택」 주변 ‘벌채·조림’ 사업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제1구역(개별심의, 이격거리 187m)에 해당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79호 「봉화 만산 고택」
 - 소재지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288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
- (4) 신청내용 : 벌채·조림 사업
 - 벌목 : 소나무 6본, 낙엽송 177본, 기타 활엽수 15본
 - 조림 : 낙엽송 1.03ha, 3,090본 식재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 2018.12.19)

- 해당 조림지의 간벌목 수종을 개량하여도 문화재경관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가결

14. 청도 윤림 고택 주변 축사 증축 1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45호 「청도 윤림 고택」 주변 ‘축사 증축’을 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245호 「청도 윤림 고택」 주변 ‘축사 증축’이 역사문화 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제4구역(평지붕 8m이하, 경사지붕 12m이하 주거, 근린생활시설 가능, 이격 거리 420m 이격)에 해당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45호 「청도 윤림 고택」
 - 소 재 지 :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631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
- (4) 신청내용 : 축사 증축(적법화) 505.2㎡
 - 대지면적 : 3,525㎡

동별	기 존(㎡)		증 축(㎡)		소 계	비 고
1동	축사	648	축사	467.85	1,115.85	
2동	축사	283.5	축사	37.35	320.85	
3동	단독주택	97.6	-	-	97.6	
합계		1,029.1		505.2	1,534.30	

라. 검토의견

- 문화재로부터 직접적으로 조망되지 않아 경관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회 논의를 통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

마. 의결사항

- 가결

15. 청도 윤림 고택 주변 축사 증축 2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45호 「청도 윤림 고택」 주변 ‘축사 증축’을 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245호 「청도 윤림 고택」 주변 ‘축사 증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제3구역(평지붕 5m이하, 경사지붕 12m이하 주거, 근린생활시설 가능, 이격 거리 280m)에 해당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45호 「청도 윤림 고택」
 - 소 재 지 :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631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 ○ ○
- (4) 신청내용 : 축사 증축(적법화) 657㎡
 - 대지면적 : 2,258㎡

동별	기 준(㎡)		증 축(㎡)		소 계	비 고
1동	축사	396	축사	252	648	
2동	축사	-	축사	405	405	
합계		396		657	1,053	

라. 검토의견

- 문화재로부터 직접적으로 조망되지 않아 경관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회 논의를 통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

마. 의결사항

○ 보류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검토

16. 의성 소우당 고택 주변 창고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37호 「의성 소우당 고택」 주변 ‘창고 신축’을 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237호 「의성 소우당 고택」 주변 ‘창고 신축’ 행위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제1구역(개별심의, 130m이격)에 해당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37호 「의성 소우당 고택」
 - 소재지 :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산우리 171-3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산우리 ○○○
- (4) 신청내용 : 창고 신축
 - 대지면적 : 390m²
 - 건축면적/연면적 : 108m²/108m²
 - 층수/높이 : 1층/5.4m
 - 구조 : 경량철골조

라. 검토의견

- 본 건물은 문화재 배면에 130m 이격된 1구역에 창고를 신축하는 건으로 문화재에서 조망되는 위치에 있어 경관에 저해될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재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17. 영주 무섬마을 주변 허가사항 변경(농막→단독주택)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주변 기존 ‘농막 설치’에서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허가사항 변경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영주 무섬마을 주변 기존 ‘농막 설치’에서 ‘단독주택 신축’으로 허가사항 변경 신청한 사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제1구역(개별심의,이격거리 355m)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청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월호리 ○ ○ ○
- (4) 신청내용 :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 (일반건축물)단독주택 신축

구 분	기존 허가사항 (2018.6월)	금회 변경신청	비 고
대지면적	-	972m ²	
건축면적	18m ²	106.39m ²	
연면적	18m ²	94.58m ²	
높 이	2.6m	5.31m	
용 도	농막(컨테이너)	단독주택	
기 타	차폐식재 3주	-	

라. 검토의견

- 당초 임시시설물(농막)에서 일반건축물(단독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구역인 제방에서 직접 조망되는 지역으로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18. 아산 외암마을 종합정비계획(보완) 수립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의 종합정비계획(보완)을 수립하고자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저잣거리 시설 정비, 나대지 가옥 신축, 개별가옥 정비방안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보완한 ‘아산 외암마을 종합정비계획(보완)’의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민속마을의 원형보존을 위한 보존·관리 원칙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 민속마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존·정비의 기준으로 삼고자 ‘아산 외암마을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2012년 3차 민속분과 심의 완료)
- 동 안건은 1차례(‘18. 7월) 민속분과 문화재위원회에 부의되었으나,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보완 후 재심의’의 사유로 부결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다시 신청한 사항임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종합정비계획 수립

제20조(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 ①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도록 지정된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보수·복원 등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문화재의 관리·운영 인력 및 투자 재원(財源)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재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아산시장

(2) 주요내용

- 가옥별 정비계획 및 생활불편 해소방안
 - 보존상태에 따른 등급 구분 및 가옥정비지침(안) 마련
- 나대지 내 건물 신축안 : 10개소 검토
 - 개별 나대지 내 가옥 신축(복원) 검토기준 마련(실거주, 문화재위원회심의, 원형고증, 소유자부담, 경관조화 원칙)
 - ※ 5대 지표 적용(일체성, 장소성, 마루선, 왜소화, 조망성)
- 주민자치규약 마련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도적 보존관리를 위한 자체규약
- 저잣거리 활성화
 - 전통놀이·농촌 체험공간, 조경공간, 마을광장, 진입로 공간 조성 등

라.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 자문 및 마을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3년 기 수립된 ‘아산 외암마을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보완한 것임
- 세부시행사항은 문화재청의 설계검토 및 현상변경허가 등을 통하여 재검토하므로 동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문화재의 진정성, 역사성을 저해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관계전문가, 마을주민 의견서 첨부 후 부의할 것

검 토 사 항

19. 봉화 오고당 고택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북 봉화군 봉성명 소재 「봉화 오고당 고택」을 국가지정 문화재(국가민속 문화재)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봉화군 봉성명 소재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52호 「봉화 오고당 고택」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승격 지정 신청한 사항임
-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2016. 12. 9.) 결과 : 지정가치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봉화 오고당 고택(奉化 五高堂 古宅/Ogodang Historic House, Bonghwa)
 - 소재지 : 경북 봉화군 봉성명 봉양리 봉양4길 26-17(봉양리 598)
 - 소유자 : ○○○
 - 수량 : 일괄(건축물 3동 123.68㎡, 토지 5,655.8㎡<17필지>)
 - 건축물 지정 : 3동 123.68㎡

명칭	시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본채	조선시대	목조, 5량가, 팔작지붕	77.26㎡	○○○
별당채	조선시대	목조, 3량가, 우진각지붕	26.40㎡	
문간채	조선시대	목조, 3량가, 우진각지붕	20.02㎡	
계			123.68㎡	

- 토지 지정 면적 : 17필지, 5,655.8㎡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598	대	1,223	1,2238	○○○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591	대	734	31.16	○○○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595	대	740	189.68	○○○
계			2,697	12,458.84	

라. 지정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불임 참조

<○○○ 문화재위원> : 논의 필요

- 봉화 오고당 고택은 조선후기 명의(名醫)로 알려진 오고(五高) 박한진(朴翰鎭, 1815~1893)이 살았던 집이다. 건립시기는 1820년대로 박한진의 부친 박재경(朴載景, 1765 - ?) 때로 추정하고 있다. 고택은 와가(瓦家) 까치구멍집이며, 일반민가의 까치 구멍집과 달리 별당이 있는 건물이다. 이는 박한진이 의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아 집안이 윗대부터 농사짓는 일반 백성의 위치라기보다 가난한 양반이나, 중인(中人) 정도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신분이 이어서 별당을 지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아니면 박한진이 명의로 알려져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할 수 있어서 그가 별당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 또, 박한진이 의원으로서 명성을 얻었고, 당시 궁벽한 오지에 거주하던 그의 명성이 궁궐에 까지 알려져 1875(고종 12)년 헌종(憲宗, 1827~1849)의 생모 조대비(1808~1890)의 병을 고쳐주기에 이른다. 그 공로로 고종으로부터 오고(五高)라는 호를 하사 받았다. 그리고 조대비의 곁에 있으라는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고 향리에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의술을 펼쳤다.
- 하지만, 박한진과 관련한 자료는 『오고당 유고집』 이외에는 거의 전하는 것이 없다. 현재 고택의 소유자인 직계후손은 외지에 있고, 오고당 고택에는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집안의 생활상을 엿 볼 수 있는 생활용구나, 의례 등도 살펴 볼만한 자료들은 없다
- 이와 같이 흔히 반가(班家)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가목물들이나, 전통적의 생활 모습 등을 볼 수 있는 고택은 아니다. 다만, 오고당 고택이 까치구멍이라는 독특한 민가형식의 집으로서 이곳에서 나고 살았던 박한진이 명의로 알려져 있고, 왕실 대비에게 병을 고쳐주어 왕에게 호를 하사받은 특이한 점 등은 주목된다. 국가민속문화재로서 오고당 고택의 주거공간이 갖는 역사·민속적인 의미에서 학술성은 약한 측면이 있다. 다만, 반가가 아니고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민가이기 때문에 건축사나 주거사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그 특성을 찾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건축부분에서 학술성과 역사성이 담보된다면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 문화재위원> : 지정가치 있음

- 봉화 오고당 본채는 경상북도 북부지방 곁집의 특성을 잘 보존하고 있으면서, 곁집에서 찾아보기 힘든 남녀공간이 구획된 평면구성방법에서 곁집의 변화양상을 찾을 수 있으며 3곁집이 대문채, 별당채를 둔 본채(정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드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인문환경의 변화에 따른 건축평면구성 및 배치법에서 서민주거건축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어 민속건축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지정 보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 논의 필요

- 오고당 고택은 소위, 외폐내개(外閉內開)의 평면구성, 까치구멍 등 산간지역 민가건축의 건축적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교적 질서체계의 하나로서 남녀의 내외구분이 사랑채가 아닌 여성들의 영역인 별당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 다만, 고택의 최초 건립년대 등 건축적 내력을 비교적 명확히 파악할 수 없고 또한, 최초 건립당시와 비교해 변형의 유무 및 정도를 알 수 없는 것이 한계라 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현재의 고택 보존·관리 상태가 미흡하고 창호, 마감재 등에 대한 변형이 심하며, 또한 부엌에 덧 달아낸 화장실 및 보일러실의 건축형태와 외관 등이 고택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유사한 가옥 형태인 인근에 위치한 국가민속문화재 제247호 ‘봉화 설매리 3곁까치구멍집’과 비교할 때 원형의 보존 상태는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현재의 경상북도 민속자료에서 국가민속문화재로의 승격 지정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마. 참고사항(봉화군 의견)

- 봉화 오고당 고택은 조선후기의 민가건축으로서 인물이 비교적 확실하고, 건물 배치와 공간 구성, 주 건물인 본채의 평면과 지붕형태 등에서 다른 민가와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 역사적, 인물적, 건축적 가치를 고루 갖춘 문화유산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바. 의결사항

○ 보류

- 학술적 고증자료 보완 후 재검토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

봉화 오고당 고택 지정 조사보고서

조사자 : ○○○ 문화재위원

- 신청종별 : 국가민속문화재
- 소 유 자 : ○○○
- 신 청 인 : ○○○

1. 오고당 박한진의 계보

오고당(五高堂) 고택은 밀양박씨 공간공파(恭簡公派) 박한진(朴翰鎭, 1815-1893)의 호를 당호로 한 것이다.

밀양박씨가 봉화로 입향한 것은 박일손(朴逸遜)이 경북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봉화군 운산)에 조상의 묘소를 조성하면서 세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시기는 대체로 예서 1600년대 초중반으로 보이며, 후손들은 명호면 일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박한진은 그의 아버지 재경(載景, 1765-?)이 현재 오고당을 짓고 봉양리에 거주한 것이라면 혼인하고 분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한진은 밀양박씨 공간공파(恭簡公派)이다. 공간공은 밀양박씨 시조 박혁세의 52세손 박건(朴建, 1434 - 1509)으로 공간공파의 시조가 되었다. 그는 밀양박씨 51세 공효공 중손(恭孝公 仲孫)의 셋째아들로 1453년(단종 1) 식문과에 급제하였고, 집현전 수찬, 교리를 거쳐 사정(司正)을 지냈다. 1483년 천추사(千秋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495년(연산군 1) 우참찬으로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를 겸하여 성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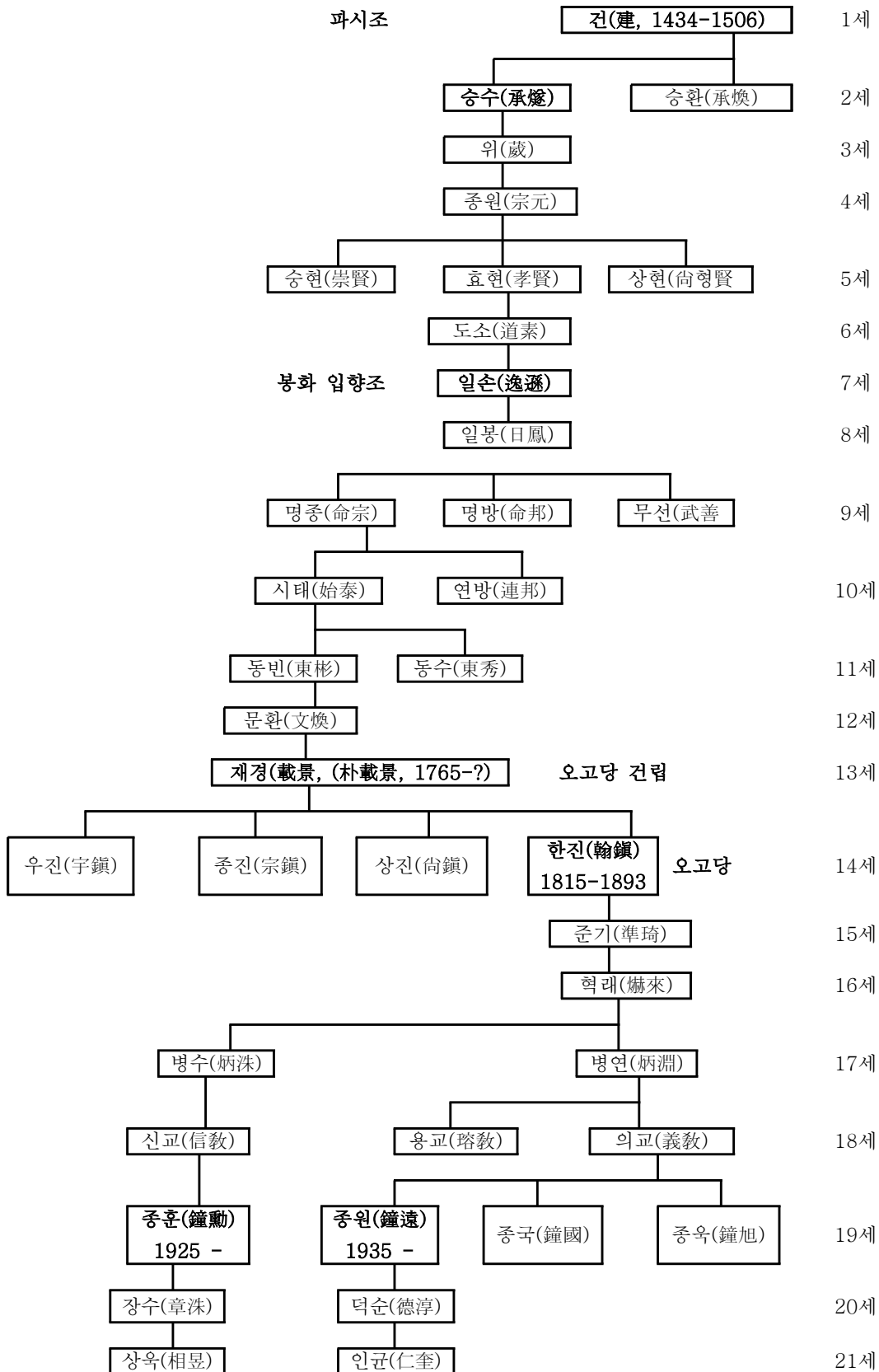
1504년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의 추시(追諡)을 반대하다가 함경도 관찰사로 좌천되었다. 1506년 판중추부사(判中樞府使)에 임명되었다가 박원종(朴元宗)·성희안(成希顔) 등과 함께 반정(反正)에 참여하여 중종(中宗)을 왕으로 추대한 공로로 정국공신 3등이 되고, 밀산군(密山君)으로 봉해졌으며 이듬해 부원군(府院君)으로 진봉되었다. 뒤에 좌찬성과 연경연사(領經筵事)를 지냈다. 시호(諡號)는 공간(恭簡)이고, 세덕사, 월현사, 공간묘, 예산서원(남원)에 배향(配享)되었다

박한진(朴翰鎭, 1815-1893)은 봉양리에서 태어났으며 품성이 충명·예민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깊고 부모님께 효성이 지극하였다고 한다. 12세 때 아버지의 병환으로 여러 의원을 찾았지만 병명은 다양하고 처방도 달랐다. 완쾌는 되었지만 오진으로 인한 병세의 악

화를 보고 이에 의술을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는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이면서도 의술을 공부하여 일정한 경지를 이르러 진맥하고 약을 쓰기만 하면 치료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돈이 없어 약을 쓰지 못하는 환자는 무료로 고쳐 주기도 하였다. 환자가 아무리 부유하다고 하여도 치료를 하고 나서는 약 값 외의 돈을 받지 않았다.

1875년(고종 12) 61세 당시에 현종 임금의 생모인 신정왕후 조대비가 부창증(浮脹症)으로 사경을 헤맬 때, 전국에서 명의란 명의는 다 모여들어 갖은 방도를 써가며 애를 썼지만 모두 고칠 수 없다고 물러나자, 오로지 약 세 첩만을 써서 완쾌시킨 명의였다고 한다. 그러자 고종은 ‘만리오고(萬里五高)’라고 호(號)를 내렸다. 조대비도 여러 차례에 걸쳐 친필편지를 보내면서 가까이 와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매번 사양을 하고, 79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방 향리에서 일반 백성을 위해서 진맥을 하고 의원 활동을 했다.

밀양박씨 공간공파 박한진의 계보



2. 고택과 생활문화

봉화 오고당 고택(五高堂 古宅)은 현재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52호(1984. 12. 29 지정)로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봉양 4길 26-17(봉양리 598)에 있다. 이 집의 오고당이란 당호는 조선후기 이 집에서 거처한 오고(五高) 박한진(朴翰鎭, 1815~1893)의 생가로 후손들이 붙인 명칭이다.

집의 건립연대는 정확하게 알려진바 없지만, 경상북도에서 민속문화재 지정할 때 1820년경이라고 밝히고 있다. 집의 당호가 오고당이라고 한 것은 박한진의 의술이 널리 알려져 조선평말기 헌종의 생모 조대비의 병을 고치게 된 후 고종으로부터 하사받은 박한진의 호를 따서 후대에 붙인 것이다.

박한진이 받은 당호인 오고(五高)와 관련해 전해 내려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박한진이 1875년 61세 때 조대비의 병환을 고친 후 임금은 벼슬을 내려 고마움을 표하려 하였으나 박한진이 거듭 사양하여, 임금이 “인술뿐만 아니라 의리 또한 드높구나.”라고 감탄하고 ‘명가전만리(名可傳萬里 : 명성이 만리에 전해질 것이다)’라 하며 만리(萬里)를 호와 오고(五高)를 우호로 내렸다고 한다. 박한진이 집으로 돌아와 ‘만리정오고거(萬里亭五高居)’라는 쌍현판을 문패처럼 내걸었고, 하사품과 조대비의 한글 친서가 내려왔다고 전한다.

이러한 사실은 박한진과 관련된 글을 모아 유고집인 ‘오고선생전(五高先生傳)’에 실려 있다. 집안에서는 조대비에게 받은 하사품이나, 한글친서 등은 전하지 않고 있다.

오고당 고택은 건립시기와 박한진의 출생 연대로 보아 그의 아버지 박재경(朴載景, 1765 - ?)이 지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현선’이라는 목수가 지었다고 전하기도 한다.

고택에는 오고당(五高堂) 편액이 걸려 있고, 집은 본채·별당채·문간채 등 3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오고당의 몸채는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와가 까치구멍집이다. 고택의 건립에 대한 기록이 없어 처음부터 몸채·아래채·문간채가 함께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현재 대문에서 들어오면 말을 탈 때 사용되던 손잡이가 있어 문간채에 마굿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별당채는 여성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보인다.

본채는 까치구멍집 중에 마루중심형 겹집에 속한다. 입구에 들어서면 봉당을 중심으로 정지(부엌)와 외양간(현재 창고)이 있고, 그 다음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왼쪽에 안방, 오른쪽의 안에 사랑방과 앞에 사랑마루가 있다.

현재 고택의 거주자는 이 집의 소유자가 아니고 토지 소유자 박종훈과의 친척되는 사람으로 시집와서부터 이집에 살고 있다고 한다. 집안에는 과거 농사도구, 의례 등을 볼 수 있는 생활문화 자료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3. 조사자 의견

봉화 오고당 고택은 조선후기 명의(名醫)로 알려진 오고(五高) 박한진(朴翰鎭, 1815~1893)이 살았던 집이다. 건립시기는 1820년대로 박한진의 부친 박재경(朴載景, 1765 - ?) 때로 추정하고 있다. 고택은 와가(瓦家) 까치구멍집이며, 일반민가의 까치 구멍집과 달리 별당이 있는 건물이다. 이는 박한진이 의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아 집안이 윗대부터 농사짓는 일반 백성의 위치라기보다 가난한 양반이나, 중인(中人) 정도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신분이 이어서 별당을 지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아니면 박한진이 명의로 알려져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할 수 있어서 그가 별당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또, 박한진이 의원으로서 명성을 얻었고, 당시 궁벽한 오지에 거주하던 그의 명성이 궁궐에 까지 알려져 1875(고종 12)년 헌종(憲宗, 1827~1849)의 생모 조대비(1808~1890)의 병을 고쳐주기에 이른다. 그 공로로 고종으로부터 오고(五高)라는 호를 하사 받았다. 그리고 조대비의 곁에 있으라는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고 향리에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의술을 펼쳤다.

하지만, 박한진과 관련한 자료는 『오고당 유고집』 이외에는 거의 전하는 것이 없다. 현재 고택의 소유자인 직계후손은 외지에 있고, 오고당 고택에는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집안의 생활상을 엿 볼 수 있는 생활용구나, 의례 등도 살펴 볼 만한 자료들은 없다

이와 같이 흔히 반가(班家)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가록물들이나, 전통적의 생활 모습 등을 볼 수 있는 고택은 아니다. 다만, 오고당 고택이 까치구멍이라는 독특한 민가형식의 집으로서 이곳에서 나고 살았던 박한진이 명의로 알려져 있고, 왕실 대비에게 병을 고쳐주어 왕에게 호를 하사받은 특이한 점 등은 주목된다. 국가민속문화재로서 오고당 고택의 주거공간이 갖는 역사·민속적인 의미에서 학술성은 약한 측면이 있다. 다만, 반가가 아니고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민가이기 때문에 건축사나 주거사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그 특성을 찾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건축부분에서 학술성과 역사성이 담보된다면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봉화 오고당고택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자 : ○○○ 문화재위원

① 문화재 종류 ; 국가민속문화재

② 문화재 명칭 ; 봉화 오고당고택(奉化 五高堂古宅)

③ 연혁·유래 및 특징 ;

고종임금 당시 신정황후 조대비의 병환을 치료한 후 고종황제로 부터 ‘만리오고(萬里五高)’라는 호를 받은 박한진(朴翰鎭;1815~1893)이 거주하였던 가옥이며, 현 소유자의 7대조가 현선이라는 목수를 시켜 건립하였다고 전한다.¹⁾ 그리고 1820년대 건립²⁾이라는 의견도 있어 명확한 건립년대가 밝혀지진 않지만 박한진의 생몰년대와 비교하여 추론할 때 부친 박재경(朴載景;1765~?)이 18세기 후반이나 19세기초 건립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④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건축적 가치]

1) 배치 ;

얕은 야산 경사지에 남동향으로 3칸 겹집형태의 본채가 자리하고 좌측에 동향으로 일자 홑집평면의 별채를, 동측으로 5칸 일자홑집평면 대문채를 통하여 가옥에 출입토록 하였다.

건물배치에서 뚜렷한 규범을 지니지 않으나 과거 본채 전면 좌측편 기둥에 기대어 별채로 통하는 협문을 설치하고 배면 우측 우주부분에 돌담장을 쌓아 외부공간을 구획하여 민가의 남녀공간구분의 일면은 살필 수 있다.

2) 본 채 ;

본채의 평면구성은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 건립된 지역별 민가평면형태 가운데 강원도지방에서 볼 수 있는 3칸겹집평면형태인 두리집형의 평면이다. 집의 출입구인 봉당을 들어서면 좌측에 부엌과 확장된 보일러실, 화장실이 자리하고 우측에 우물마루바닥의 고방(구 외양간)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 마루를 중심으로 좌측에 여성공간인 2칸통 안방이, 우측에 폐쇄형마루방과 온돌방을 연접배치하고 우측 외부쪽에 텃마루를 두어 외부에서 봉당으로 출입하지 않고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사랑공간을 배치하였다. 따라서 평

1) 경상북도 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 정경운위원조사, 1984.

2) 1990년 보수시 상량문을 발견하여 보관 중 망실하였고 당시의 내용 중 1820년 건립이라고 기억

면의 공간구성은 중앙 마루와 안방이 여성공간, 우측 2칸이 남성공간으로 구분되어 일반적 두리집평면구성과는 달리 폐쇄된 마루방을 뒀으로서 확연한 공간구획이 이루어진 평면을 구성하였다. 현재 부엌과 화장실, 보일러실공간은 지방문화재지정 후 생활편의시설 개선으로 변경되었으나 우측 고방은 지정 당시에도 현재와 같이 우물마루를 깔 고방이었으나 과거 외양간으로 사용 당시의 흔적이라 볼 수 있는 판벽과 판문, 상부의 수장시설은 남아있어 과거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봉당의 출입문은 둔테를 설치한 쌍여닫이 판장문이며 상부에 환기창2구를 두었고 외양간이었던 고방은 봉당쪽으로 외여닫이 판장문과 심벽으로 폐쇄하였다. 그리고 중앙 마루와 사랑마루방 사이는 판문과 심벽으로 구획하였으나 외작미서기판문을 설치하여 개폐시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마루 배면은 쌍여닫이 판문을 설치하고 심벽으로 마감하였는데 이는 안동지역 곽집의 마루 배면의 벽체가 판벽으로 마감되는 것과 달리 심벽으로 마감함은 겨울철 추운 날씨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자연환경에 적합한 마감수법을 살필 수 있다. 과거 안방 윗목에 반간쪽의 공부방이 있었으나 현재는 통간으로 확장하였으며 좌측에 별채로의 출입을 위한 문을 두었다. 온돌방 천정은 과거 고미반자였으나 현재는 합판에 천정지로 마감하였다. 사랑방은 외부쪽으로 쌍여닫이 세살문과 미단이문을 겹으로 설치하였고 높게 뒷마루를 두고 하부에 아궁이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외부에서 사랑방으로의 출입은 사랑마루방 쪽 뒷마루를 이용토록하였다.

상부구조는 납도리에 3분변작하여 종량을 엮고 제형판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게 한 5량구조이다. 내진주(內陳柱) 상부에서 전, 후 량재(樑材)를 결구시켰으나 주두위에서 합보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전면 량재는 가운데 량재보다 한단 낮게 기둥에 결구되고 상부의 동자주를 받도록 처리하여 일반적 결구법에서 다소 벗어난 법식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붕이 팔작으로 구성된 관계로 추녀를 결구시키기 위하여 외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종량 외측에 종량방향으로 각재를 건너지르고 추녀를 받게 하고 측면 서까래를 올렸다. 따라서 합각이 종량외측에 근접되어 용마루가 짧아졌다. 이는 합각벽을 채광과 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의 결과로 보이며, 웃는 모습의 용마루 인면망와는 민가에서 찾기 어려운 사례라 보인다.

3) 별당채

소유주의 전언에 따르면 별당채는 과거 여성들이 주로 사용한 건물로 외부에서는 건물이 노출되지 않고 진입 역시 본채 전면의 협문을 통하여만 하여 공간의 구획이 확연하다.

자연석 기단위에 정면 3칸, 측면 1칸 3량구조 스테이트 우진각지붕건물이다. 1982년도 지방문화재지정 당시 평면도에 의하면 좌측에 온돌방 2칸, 우측편에 마루를 깔 고방 1칸 모두 3칸으로 짜여 있었으나 현재는 2통간으로 확장하였다. 상부구조는 막서까래를 엮은 3량가구이며 현재 스테이트 우진각지붕이나 과거 초가지붕이었다.

4) 대문채

정면5칸, 측면 1칸 일자홀집평면에 3량 우진각 스테이트지붕건물이다.. 진입방향에서 본 평면구성은 대문간을 중심으로 좌측 마구간, 우측에 문간방, 광과 외양간을 연결시킨 5칸으로 짜여진 평면이다. 대문간은 도로쪽으로 둔테의 설치법이 독특한 쌍여닫이 대문을 설치하였다. 좌측 마구간은 보방향으로 판벽마감하고 도리방향으로는 내측은 개방하고 도로측은 토벽으로 폐쇄하였고 대문간 기둥에 말고삐를 매어둔 나무고리가 남아있다. 우측온돌방은 내측으로 외여닫이 세살문이 설치되었고 우측으로 광과 외양간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온돌방 옆간은 과거 함실간으로 추정되며 과거 우측간 내측으로 두엄더미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우측간이 외양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상부가구를 살펴보면 대문간을 중심으로 한 3칸은 기둥과 도리의 결구법이 목구조결구법에 부합되도록 처리하였으나 우측2칸은 치목하지 않은 자연재를 도리와 기둥으로 사용하고 결구법도 갖추지 않아 우측 2칸이 후대에 증축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우측 2칸은 본채에서 외양간이 외부로 이전될 때 확장된 부분으로 추정된다.

5) 종합의견

봉화 오고당 본채는 경상북도 북부지방 곽집의 특성을 잘 보존하고 있으면서, 곽집에서 찾아보기 힘든 남녀공간이 구획된 평면구성방법에서 곽집의 변화양상을 찾을 수 있으며 3곽집이 대문채, 별당채를 둔 본채(정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드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인문환경의 변화에 따른 건축평면구성 및 배치법에서 서민주거건축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어 민속건축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지정 보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봉화(奉化) 오고당(五高堂) 고택(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조사 의견서

조사자 : ○○○ 문화재전문위원

1. 대상유적 : 봉화 오고당 고택(경상북도 민속자료 제52호)

2.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봉양4길 26-17(봉양리 598)

3. 창건과 변천

‘오고당(五高堂) 고택’은 조선후기 명의(名醫)로 알려진 오고(五高) 박한진(朴翰鎭), 1815~1893)의 생가로 건립 년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전언에 의하면 그의 부친인 박재경(朴載景, 1765~?)에 의해 1820년쯤인 것으로 추정되어 오고 있다. 박한진은 조 대비 신정왕후(神貞王后)의 병환을 고쳐 고종(高宗)으로부터 만리(萬里)와 오고(五高)의 호를 받은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오고당(五高堂)’은 박한진의 당호(堂號)로 오늘날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의 학방골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곳은 밀양박씨 문중에서 소위, ‘학방(學房)’을 설치하고 글을 가르쳤다고 하여 일대가 ‘학방골’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고택은 1989년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52호 지정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으며, 이번에 제출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요청 자료 보고서’에 의하면 지정 당시 조사보고서에 소유자의 7대조가 ‘현선’이라는 목수에 요청하여 고택을 건립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현 소유주의 증언에 따르면 1990년과 2015년 등 몇 차례에 걸쳐 보수공사가 있었고 이 중 1990년 공사과정에서 고택의 건립연대를 알 수 있는 상량문이 발견되었다고 하나, 현재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현재 고택의 경내에는 본채와 함께 문간채, 별당채가 별동으로 위치하고 있으나, 이들 부속채가 최초 건립 당시부터 존재하였는지 아니면 후에 증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확인 할 수 없다. 다만, 항공사진 등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경상북도 민속자료로 지정되기 이전인 1971년에도 현재의 모습에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건축구조 및 양식

고택이 위치한 경상북도 봉화군은 오늘날 행정구역상 강원 산간지방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고 있지만 예전에는 하나의 문화권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왔다. 이러한 양상은 강원 산간지방에서 경북 북부지방 일대에 분포한 민가(民家)건축에서 쉽게 살펴 볼 수 있는데 주변의 지형 및 자연환경에 따라 가옥의 평면을 소위, 외폐내개(外閉內開)의 형태로 구성하게 된다. 즉, 각 공간을 기능에 따라 본채 이외에 창고,

외양간 등의 부속채를 분동(分棟) 형식으로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1동의 본채 내에 집약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평면이 내부 집약적으로 구성된 가옥의 경우 환기 및 채광 등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지붕 용마루 아래에 구멍(까치구멍)을 내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이를 소위, ‘까치구멍집’라 부르며 통상 까치구멍집이 초가인데 반해 오고당 고택은 기와를 얹은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고택은 전체적으로 남동향을 하여 자리 잡고 있으며 크게 본채와 별당채, 문간채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채를 중심으로 우측편에는 문간채, 좌측편에는 별당채가 위치하여 문간채에서 별당채로 통하는 직접적인 동선과 시선을 차단하였는데 이는 별당채가 여성들의 부속공간으로서 소위, 상류주택에서의 내·외의 구분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고택 내 또 다른 흔적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본채 좌측 퇴칸에 위치한 부엌 외부에 별당채로 출입하던 협문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소실되어 기둥에 장부구멍의 흔적만이 남아 있다. 이와 같이, 흔히 산간지역의 민가건축에서 상용하는 외폐내개(外閉內開)의 평면형태에서 통상적으로 상류주택에서 보이는 남녀유별의 유교적 질서체계를 실현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오고당 고택이 갖는 중요한 건축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고택을 구성하고 있는 각 영역별 구성공간들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본채는 정면3칸×측면3칸 규모의 겹집형태로 내부공간은 방, 마루, 봉당, 부엌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운데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좌측편에는 소위, 안채의 기능을 하는 여성들의 공간으로 안방과 부엌, 우측편에는 소위, 사랑채 기능을 하는 남성들의 공간으로 사랑방과 사랑대청이 위치하는 등 남·녀의 영역을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특히, 사랑대청 공간은 명의로 알려진 박한진이 진료를 보던 공적영역으로 전면에 쪽마루를 설치하여 별도로 출입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사랑대청 뒤편에 위치한 사적영역인 사랑방과의 영역분리를 위해 바닥면의 단차이를 통한 위계를 두어 구성하였다. 대청마루 전면으로는 일종의 안마당 역할을 하는 봉당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폐쇄형 가옥에서의 중요한 건축적 특징으로서 출입을 위한 현관의 기능과 함께 실내에서의 작업공간으로 사용된다. 봉당 좌측편으로 부엌, 우측편으로는 창고가 있는데 창고는 후에 변형된 것으로 본래는 외양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는 5량가의 민도리집으로 짜여졌으며 대청마루 상부에 대들보를 중심으로 전·후 기둥열에 맞춰 맞보를 설치하고 그 위에 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놓았다. 종보 위에는 판대공을 세워 상부의 종도리를 받게 하였다. 지붕은 홑처마의 기와를 얹은 소위, 까치구멍집으로 양쪽 박공면에 뚫어 놓은 까치구멍을 통해 실내 공기의 순환 및 배연, 자연 채광을 하도록 하였다. 기둥은 내·외진주 모두 방주를 사용하였고 기둥 상부에는 장여를 걸고 그 위에 보머리를 얹어 도리를 받는 민도집으로 구성하였으며 도리는 모두 방형의 납도리를 사용하였다. 벽체는 일반적으로 심벽으로 마감하였으

나 정면부는 모두 관벽으로 하였는데 이는 과거 부엌의 아궁이 및 외양간에서 발생하는 연기 및 냄새 등의 환기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본채에 사용된 창호는 사랑영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근래에 현대식 창호로 개조되었으나 정면 주출입구 및 외양간 상부 외벽면에는 본래의 것으로 보이는 봉창 6개소가 남아 있다. 봉당 역시 과거에는 흙바닥이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시멘트몰탈로 마감되어 있다. 본채 내 각 실들은 다소의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공간 확장 등을 위해 실들을 통합하였으며, 부엌은 입식으로 개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엌 측면으로 반칸 규모의 공간을 달아내어 화장실과 보일러실을 설치하였다. 전·후 2칸의 대청마루 귀틀의 경우 동귀틀 방향을 서로 달리 하고 있는데 전면 대청마루 동귀틀의 경우 보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 별당채는 정면3칸×측면1칸 규모로 一자형의 평면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본래는 2칸의 방과 1칸의 광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2칸의 방을 더 넓은 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구는 3량의 민도리집으로 짜여져 있으며 전·후 기둥열 위에 대량을 놓고 그 위에 대공을 설치하여 상부 종도리를 받게 하였다. 현재 지붕은 슬레이트를 얹은 우진각지붕으로 되어 있으나 1989년 경상북도 민속자료 지정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과거에는 초가지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창호는 기본적으로 세살여닫이 창호로 되어 있으나, 광은 판문을 설치하였고 측면과 배면 일부 벽체 상부에는 봉창을 내었으며 좌측면 기단에는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다. 별당채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 별당채는 정면4칸×측면1칸 규모로 一자형의 평면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외양간 1칸, 대문 1칸, 광 2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는 3량의 민도리집으로 짜여져 있으며 전·후 기둥열 위에 대량을 놓고 그 위에 대공을 설치하여 상부 종도리를 받게 하였다. 지붕은 별당채와 같이 슬레이트를 얹은 우진각지붕으로 되어 있으나 1989년 경상북도 민속자료 조사보고서에는 기와지붕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퇴락의 정도가 심하여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지정가치

- ☐ 오고당 고택은 소위, 외폐내개(外閉內開)의 평면구성, 까지구멍 등 산간지역 민가건축의 건축적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교적 질서체계의 하나로써 남녀의 내외구분이 사랑채가 아닌 여성들의 영역인 별당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 ☐ 다만, 고택의 최초 건립년대 등 건축적 내력을 비교적 명확히 파악할 수 없고 또한, 최초 건립당시와 비교해 변형의 유무 및 정도를 알 수 없는 것이 한계라 할 수 있다.
- ☐ 이와 함께, 현재의 고택 보존·관리 상태가 미흡하고 창호, 마감재 등에 대한 변형

이 심하며, 또한 부엌에 덧 달아낸 화장실 및 보일러실의 건축형태와 외관 등이 고택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유사한 가옥 형태인 인근에 위치한 국가민속문화재 제247호 ‘봉화 설매리 3겹까지구멍집’과 비교할 때 원형의 보존 상태는 상대적으로 매우 열약하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현재의 경상북도 민속자료에서 국가민속문화재로의 승격 지정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0. 영천 호수 종택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북 영천시 대전동 소재 「영천 호수 종택」을 국가지정 문화재(국가민속 문화재)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영천시 대전동 소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90호 「호수종택」을 국가지정 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승격 지정 신청한 사항임
-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2012. 12. 17.) 결과 : 지정가치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영천 호수 종택(永川 湖叟 宗宅/Hosu Head House, Yeongcheon)
 - 소재지 : 경북 영천시 대전길 137-35(대전동 52)
 - 소유자 : ○○○
 - 수량 : 일괄(건축물 2동 362.00㎡, 토지 362.00㎡<2필지>)
 - 건축물 지정 : 2동 362.00㎡

명칭	시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호수종택	조선시대	목조, 3량가, 합각지붕	309.11㎡	○○○
사당	조선시대	목조, 3량가, 맞배지붕	52.89㎡	
계			362.00㎡	

- 토지 지정 면적 : 2필지, 362.00㎡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영천시 대전동	52	대	1,068	309.11	○○○
영천시 대전동	12	종교용지	198	52.89	○○○
계			1,266	362	

- 보호구역 지정 면적 : 3필지, 1,315.00m²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m ²)	지정(m ²)	소유자
영천시 대전동	52	대	1,068	758.89	○○○
영천시 대전동	12	종교용지	198	145.11	○○○
영천시 대전동	산11-2	임야	16,938	411	○○○
계			18,204	1,315	

라. 지정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 지정가치 있음

- 영일정씨가 처음 영천에 입향한 것은 시조 습명의 8세 인언(仁諺)이 고려가 망할 것을 예견하고 영천(永川) 남(南)의 전촌(錢村, 영천시 도동)에 은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동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11세 문예(文裔)가 영천이씨와 혼인하면서부터이다. 대전동에는 영천이씨 이보흙(李輔欽, 1397-1457)의 윗대가 터를 잡은 곳으로 영천이씨와 혼인한 문예가 처가 곳으로 오게 된 것이다. 순흥부사 이보흙과는 처남매간이었다. 오천정씨 11세 문예(文裔)가 대전리의 입향조가 되지만, 14세 차근(次謹)이 다시 자양면 노항리로 이거하였고, 차근의 손자 호수 정세아는 노항리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호수 정세아의 손자 호례는 대전리에도 영일정씨가 토지나 거주지가 있었는지 대전리를 내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현재 대전동에 위치한 호수 종택의 당호(堂號)는 호수(湖叟) 정세아(鄭世雅)의 호(號)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종가를 건립한 사람은 정세아(鄭世雅)가 아니라 그의 손자인 정호례(鄭好禮, 1604-1672)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례가 해남현감으로 있을 때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1660년이나 1661년경일 것이다. 그는 1636년(인조 14) 무과에 급제하였다. 1659년(효종 10)에 선전관(宣傳官)을 제수 받고, 주부(主簿)로 옮겼다가, 다시 해남 현감으로 진출되었으나 1661년에 사직하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 오천종씨가 고려말 영천에 처음 입향하여 재지사족(在地土族)으로 성장하고, 호수 정세아와 그 아들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국가적인 변란이 일어났을 때 구국의 일념으로 적극적으로 의병으로 활동하였고, 학문에도 증진하고 관직에도는 나아가 헌신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후대에 정치적 사

회적으로 향촌사회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후손들에 의해 집안 전승하는 문서와 의례들을 통하여서도 다음과 같이 한 집안의 생활문화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 오천정씨 호수 종택은 임진왜란의 의병장 정세아 종택으로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졌다. 종택이 17세기 처음 건축된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같이 1613년에 건립된 건물은 아닌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종택은 다른 종가에 흔히 볼 수 없는 ‘공(工)’자형인데, 이는 자손들의 공부를 장려하기 위해 지은 형식의 집이라고 전한다. 안채와 연결된 부분에 ‘빈소방’이 따로 있었다는 특징도 있다.
2. 호수 정세아와 그의 아들, 손자들에 이르기 까지 의병활동을 한 집안으로 국란극복과 애국정신을 볼 수 있는 역사적인 교훈의 장소이다. 정세아와 그의 아들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영천과 경주 등에서 의병으로 활동하였고, 그의 후손은 한말에도 의병으로 활동을 한다. 한말의 유명한 산남의진 의병장 환직(煥直, 1844-1907)이 정세아의 직계 후손이다. 그와 아들 용기(鏞基, 1862-1907) 부자는 을사늑약이 체결될 무렵 고종의 밀명을 받아 영천을 중심으로 산남의진을 결성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3.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호수 종가에서 전승되는 중요한 의례는 기제사, 명절제사, 호수 정세아의 불천위, 매년 4월 하천묘역에서 지내는 묘사 등이다. 호수종가는 1990년대 이후 제례에 대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전통적인 방식의 의례를 지키던 종손의 사망으로 현대의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종손이 집안을 이어받으면서 “변화하지 않으면 전통은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는 문중 어른들의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 시기에 문중회의를 통하여 기제사는 4대봉사에서 2대봉사로 줄여 종손이 거주하는 곳에서 지방을 써서 모시되, 다만 불천위 제사는 당분간 문중이 주도하여 종택에서 모신다는 것 등이었다. 제사 음식은 안동 지방의 일부 종가에서 날고기를 쓰는데 비해 호수종가에서는 날고기를 쓰지 않으며, 도적도 크게 쌓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송기떡을 비롯한 다양한 떡을 종류별로 많이 마련하여 쓰는 것이 다른 종가의 제사와 다른 점이라고 하였다. 제주(祭酒)는 아직 집에서 쌀로 담근 청주를 사용하고 있다. 불천위는 1923년에 결성된 참재소계(參齋所契)가 있어 지금까지 제사를 담당하고, 제례 절차는 예서(禮書)에서 정한 바와 동일하며, 아헌관도 종부가 하고 있다. 묘사와 관련한 것은 1978년에

결성된 하천종약회(夏泉宗約會)가 있다. 이는 이전부터 있던 하천재위계(夏泉齋位契)의 정신과 역할을 이어받은 것이다. 묘사상의 상차림은 표준화된 것으로 주문하여 사용한다고 한다. 이제 제수를 준비할 산지기도 없고, 종중의 사람들도 직접 만들기 어려워 제수음식 만드는 곳에 표준화된 제수음식 목록을 주고 주문하여 사용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호수종택의 의례를 통하여 제례의 전통적인 모습과 변화양상을 찾아 볼 수 있다.

4. 고문서 및 전적 727점은 모두 안동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이 종택의 고문서는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자료들이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의병활동과 관련한 여러 자료들이다. 정세아와 그의 아들 정의번의 「연보(年譜)」·「행장(行狀)」·「사실(事實)」 등에는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을 비롯한 이들의 행적을 가장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영천복성일기(永川復城日記)」와 『화왕입성동고록(火旺入城同苦錄)』, 「임진일기(壬辰日記)」 등 여러 자료에서도 보인다.

- 이와 같이 오천정씨 호수종택은 한 가문의 역사적인 변화상, 향촌사회에서 역할, 전통의 계승과 변화 등을 규명해 볼 수 있는 역사·문화적인 자료가 전승되는 공간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요건에 필요한 역사성, 학술성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 문화재위원> : 지정가치 있음

- 조선시대 반가의 남녀공간구분 및 위계에 따른 건축평면구성방법과 배치방법을 잘 따르면서 대지에 순응하여 짜여진 공자형평면구성법과 고식의 창호구성방법 및 익공의 치목기법, 상부가구 결구법 등에서 종택의 건축적 특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찬실이라는 특별한 기능의 방과 용도에 따른 배치법, 서상방의 장식성, 연들의 설치법 등에서도 민속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정 보존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 논의 필요

- 호수종택은 종가로서의 생활문화가 잘 이어지고 있고 또한 민속적, 역사적, 인물적 측면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종택의 건립년대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고 더군다나 종택이 갖고 있는 중요한 건축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공자형 배치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

하여 국가민속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 이밖에, 사랑채와 문간채 건립에 대한 건축적 내력 등을 비교적 명확히 파악할 수 없고 또한, 최초 건립당시와 비교해 변형의 유무 및 정도를 알 수 없다.
- 따라서 국가민속문화재로의 승격 지정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마. 참고사항(영천시 의견)

- 호수 종택은 증가의 생활문화가 잘 이어지고 있으며, 역사적, 건축적, 인문적, 학술 및 사료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승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바. 검토의견

-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여부는 문화재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르되, 지정 시 영천시에서 신청한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당초 신청내역

- 문화재구역 지정면적 : 2필지, 362.00m² *건축면적과 동일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m ²)	지정(m ²)	소유자
영천시 대전동	52	대	1,068	309.11	오찬정씨호수공파종중
영천시 대전동	12	종교용지	198	52.89	정현목
계			1,266	362	

- 보호구역 지정면적 : 3필지, 1,315.00m² *건축면적 제외한 대지면적 및 임야 일부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m ²)	지정(m ²)	소유자
영천시 대전동	52	대	1,068	758.89	오찬정씨호수공파종중
영천시 대전동	12	종교용지	198	145.11	정현목
영천시 대전동	산11-2	임야	16,938	411	정현목
계			18,204	1,315	

- 변경 조정내역

- 문화재구역 지정면적 : 3필지, 1,677.00m² *보호구역 신청면적을 문화재구역에 포함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m ²)	지정(m ²)	소유자
영천시 대전동	52	대	1,068	1,068	오찬정씨호수공파종중
영천시 대전동	12	종교용지	198	198	정현목
영천시 대전동	산11-2	임야	16,938	411	정현목
계			18,204	1,677	

- 보호구역 지정면적 : 없음

사.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

영천 오천정씨 호수종택 지정 조사보고서

조사자 : ○○○ 문화재위원

- 신청종별 : 국가민속문화재
- 소유자 : ○○○
- 신청인 : ○○○

1. 호수 정세아의 계보와 종택

1) 호수 정세아의 계보

호수종가는 오천정씨 호수(湖叟) 정세아(鄭世雅, 1535-1612)의 장자로 이어지는 계보이다. 오천정씨가 영천에 자리 잡은 것은 시조 습명(襲明)의 8세 인언(仁諺)이다. 당시 신흥 명나라가 세력을 확장, 원나라의 약화로 조정은 이른바 친원파(親元派)와 친명파(親明派)로 갈라진 혼란한 시기였다. 특히 우왕(禡王) 때에는 신흥귀족인 이성계(李成桂)의 위화도(威化島) 회군(回軍)으로 군사·정치에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역성혁명(易姓革命)의 꿈을 꾸던 때였다.

이러한 어려운 국내외상황에 처하자 나라를 지키는 일은 인언(仁諺)의 종손자(從曾孫)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1337 -1392)에게 맡기고 가문을 지키는 일은 인언(仁諺)이 담당하여 당시 상주 목사(牧使)이던 아들(光厚)과 함께 가문의 젊은이들을 어디론가로 피신시키고 자신들도 영천(永川) 남쪽의 전촌(錢村, 영천시 도동)에 은거하였다.

11세 문예(文裔)가 영천이씨와 혼인하여 전촌(錢村)에서 처가 있는 대전동으로 옮긴다. 그의 처남이 단종복위 운동에 참여 한 순흥부사 이보흠(李甫欽)이다. 그 뒤 14세 차근(次謹)은 연산군 때 사화(史禍)를 피하여 영천(永川) 북대전((北大田)에서 노항동(魯巷洞, 현 영천시 자양면 노항리 1972년 영천댐 건설로 수몰)으로 은거하게 되므로 자양(紫陽)의 입향조가 되었다고 한다.

호수 정세아는 이곳 노항리에서 태어나 23세에 진사에 급제한 이후 일생을 학문을 하며 제자를 길렀으나,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영천성(永川城)을 수복하는 등 많은 공을 세우고 전사하였다. 그는 4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장자 의번(宜藩, 1560-1592)이 아버지와 함께 의병으로 참가하여 경주성에서 전사하였다. 장자 의번이 전사하여 후계가 없자, 세아의 4남의 아들 수번(守藩, 1580-1621)의 3남 호례를 양자로

들이게 하여 장자의 가계를 잇도록 하였다. 호례(好禮, 1604-1672)는 세아 4남의 아들이자 세아의 손자이다.

호례는 1636년 무과에 급제하였고, 병자호란 때 인조의 어가(御駕)를 호위하였다. 그는 효성이 지극하여 부친이 왜적에게 죽임을 당한 까닭에 평생동안 왜인의 물건은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가 자양(紫陽)에서 선원(仙源)으로 이거하여 대전(大田)을 내왕할 때 지름길인 죽곡(竹谷, 대내실)이 농사철에 논에 물이 없는 것을 보고 관찰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단호제(丹湖堤, 죽곡못)를 축조하여 흉년을 극복하니 고을 사람들의 생활이 향상되었다. 못도감은 현재까지도 호례의 자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호례의 장남 시상(時相, 1630-1692)은 9품 종사랑의 품계를 가졌다. 향리에서 재종인 정시연(鄭時衍)을 위시 하여 전오륜(全五倫) · 이필(李秘) · 이용(李榕) 등과 교유하며 후진양성에 힘썼다.

시상의 장남 석명(碩明, 1651-1712)은 1695년(숙종 21) 45세 때 별시 무과에 합격하였다. 함경도의 거산도찰방(居山道察訪)과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을 역임하였다.

석명의 장남 중록(重祿, 1678-1732)은 갈암 이현일을 사사하였고, 집안의 10촌 형인 만양과 규양 형제에게 학문을 배웠다. 그 인연으로 맏아들 일규(一圭)로 하여금 규양의 뒤를 잇게 하였고, 자신의 대는 둘째 아들 일탁(一鐸, 1711-1778)으로 하여금 잇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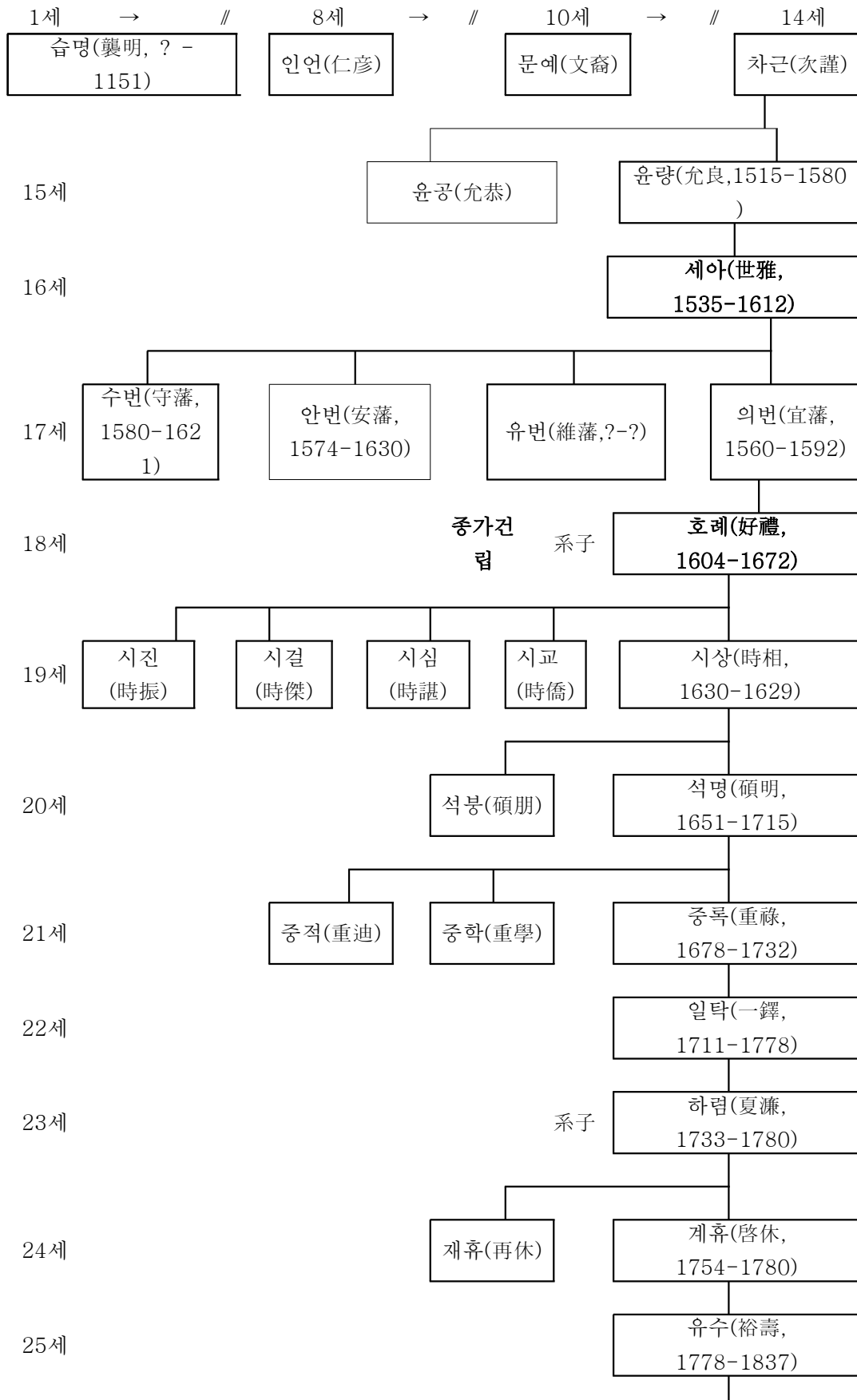
일탁은 집안의 어른인 훈수 정만양 · 지수 정규양 형제와 매산(梅山) 정중기(鄭重器)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일탁은 후사가 없어 친형인 일규의 아들 하림(夏濂, 1732-1780)으로 후사를 이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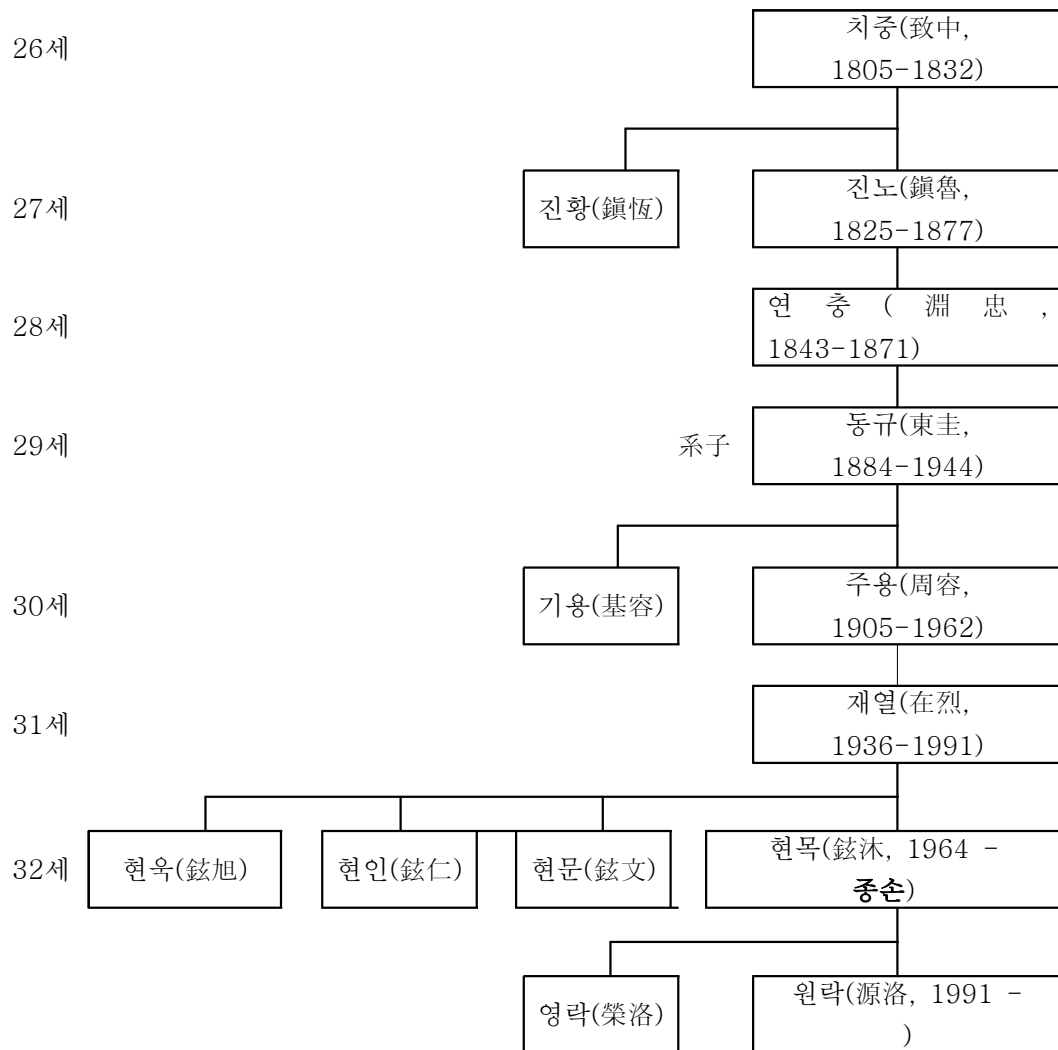
하림의 장남 계휴(啓休, 1754-1780)는 27세의 젊은 나이로 아버지와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났다. 세 살 먹은 어린 아들이 뒤를 이었으니 유수(裕壽, 1778-1837)이다.

유수의 장남 치중(致中, 1805-1832)도 28세에 세상을 떠났다. 그 뒤는 여덟 살 먹은 장남 진로(鎭魯, 1825-1877)가 이었다. 진로의 장남 연충(淵忠, 1843-1871)도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후사도 남겨 두지 못하고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 진로는 노심초사 하였으나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후사를 정하지 못하였다.

한참의 공백 기간을 거친 후에야 종가에서는 연철(淵徹)의 아들인 동규(東圭, 1884-1944)를 양자로 들일 수 있었다. 동규의 뒤는 장남 주용(周容, 1905-1962)이 이었고, 그 뒤는 주용의 장남 재열(在烈, 1938-1990)이 이었다. 재열의 장남 현목(鉉沐, 1964년생)이 현 종손으로 호수의 16대손이 된다.

호수 정세아의 계보





영일정씨의 문중은 11세에서 포은 정몽주의 후손인 1파이고, 영천에 입향한 8세손 인연의 후손으로 장손인 문예(文裔)가 2파이고 나머지 손자가 3, 4, 5, 6파로 나누어진다.

호수(湖叟) 정세아(鄭世雅, 1535-1612)는 11세 문예의 후손으로 2파이고, 문예의 셋째 증손자 차근(次謹)의 장자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세아는 4명의 아들을 두어 장남 의변(宜藩, 1560-1592)의 후손은 백암문중(柏巖門中, 차남 유번(維藩, ?-?)의 후손은 처사문중(處士門中), 삼남 안번(安藩, 1574-1630)의 후손은 만호문중(萬戶門中), 사남 수번(守藩, 1580-1621)의 후손은 호군공문중(護軍公門中)이라고 한다.

현재 영천 지역의 영일정씨(迎日鄭氏)는 오천정씨(烏川定氏)라고도 한다. 오천정씨는 세아의 조부 차근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한 하천종약회(夏泉宗約會)를 중심으로 문중이 움직인다.

하천종약회는 영천시 자양면 성곡리에 오천정씨 조상들의 묘역이 있는데, 이곳에 영

천에 처음 입향한 14세 차근의 묘를 비롯하여 80여기묘소가 모여 있다. 이 묘역을 하천묘역(夏泉墓域)이라고 하는데, 이 묘역을 관리 하는 중요한 단체가 하천종약회이다. 종약회 회칙은 1978년 만들어졌고, 임원은 1. 고문 : 약간명, 2. 회장 : 1명, 3. 상근부회장 : 1명, 4. 부회장 : 5명 이내, 5. 이사 : 삼십인 이내, 6. 총무 : 일인, 7. 재무 : 일인, 8. 감사 : 삼인 등으로 되어 있다. 이외에 2016년 임원록을 보면 재장(齋長) 1명, 유사 3명, 종손이 포함되어 있다. 재장은 하천묘역에 제사와 관련하여 선무랑 차근의 묘사에 초헌관을 하고, 유사는 제사 준비를 한다. 오천정씨 종약회보를 보면 재장이 종약회장 보다 먼저 인사말을 한 것으로 보아 하천재장의 위상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종약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천묘역과 조상이 남겨놓은 여러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다.

2. 종택의 건립

오천정씨(영일정씨) 11세 문예(文裔)가 영천 대전리의 입향조가 되지만, 14세 차근(次謹)이 다시 자양면 노항리로 이거하였고, 차근의 손자 호수 정세아는 노항리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호수(湖叟) 정세아(鄭世雅, 1535-1612)의 손자 호례(好禮, 1604-1672)는 대전리에도 토지나 거주지가 있었는지 그 곳을 내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수 종택은 호례(好禮, 1604-1672)가 해남현감으로 있을 때 건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때가 1613년이라고 전한다. 하지만, 이 건립연대는 호례의 출생시기. 그가 무과에 급제한 시기, 관직에 있었던 시기 등과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호례는 1604년에 출생하였고, 1636년(인조 14) 무과에 급제하였다. 1659년(효종 10)에 선전관(宣傳官)을 제수 받고, 주부(主簿)로 옮겼다가, 다시 해남 현감으로 진출되었으나 1661년에 사직하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1613년이면 호례가 9세 때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해남현감일 때 종택을 건립하였다고 인정한다면 그의 행적으로 보아 1660년이나, 1661년일 가능성 높다.

종택은 마을 안쪽 구룡산 아래 남동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종택이 다른 종가에 흔히 볼 수 없는 ‘공(工)’자형인데, 이는 자손들의 공부를 장려하기 위해 지은 형식의 집이라고 전한다.

집은 정면 10칸 건물로 대문간채 · 사랑채 · 안채 · 사당으로 구성되어있다. 대문간채 · 사랑채 · 안채는 한 건물로 연결되어 있다. 대문의 좌측은 외양간·사랑방·대청으로 사랑채를 구성하고, 우측은 곳간 · 창고 · 문간방으로 이어져 있다. 안채는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에 반칸 툇마루를 둔 상방, 우측에는 안방 · 마루 · 방으로 연결되어 있다. 안방 앞쪽으로는 방과 부엌이 배치되어 문간채와 연결하였고, 안방 우측에 이어들

인 마루와 이어진 방은 단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방은 시신을 모시고 빈소로 이용되었던 곳이라고 한다.

사당은 호수 정세아의 불천위 위패와 4대조 신주를 모신 곳으로 본채의 왼쪽 뒤편에 있다. 사당 안의 맨 오른쪽에는 불천위 신주를 모셨고, 그 옆 쪽으로 4대조를 차례로 신주를 모셨다. 사당 앞쪽에는 수령 300여년 정도된 향나무가 한그루 있는데, 영천시 보호수이다.

종가에는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 큰 집을 노종부가 혼자 관리하기 어려워 1995년경 종택 앞마당 아래에 따로 살림집을 하나 지어 그곳에 기거하면서 모든 제사와 종가의 일을 맡아보고 있다.

3. 호수 종가의 인물과 의병활동

1) 호수((湖叟) 정세아(鄭世雅, 1535-1612)

정세아는 1535년(중종 30) 영천의 노항리에서 태어났다. 자는 화숙(和叔), 호는 호수(湖叟)라고 하였다.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학문을 배웠으며, 1558년(명종 13) 24세에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벼슬에 뜻이 없어서 더 이상 과거시험에 연연하지 않았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향촌의 자제들을 동원하여 편대를 정하고 격문을 작성하여 900여 명에 달하는 의병을 규합한 후 의병대장이 되었다. 그때 곽재우(郭再祐)는 의령에서, 권응수(權應銖)는 신령에서 각각 기병하여 서로 성원하였다. 그해 7월 권응수 · 정대임(鄭大任)과 함께 영천 박연(博淵)에서 왜적과 싸워 큰 전과를 거두었고, 이어 영천성을 수복하였다. 다시 경주의 왜적을 격퇴하여 경주를 수복하였다. 영천과 경주를 회복함으로써 경상도 동북부지역이 온전할 수 있었다.

이듬해 평양과 서울이 차례로 수복되자 군사를 조회익(曹希益)에게 맡기고 자양으로 돌아왔다. 체찰사 이원익(李元翼)에 의하여 여러 번 천거되었으나 사양하였고, 나중에 황산도찰방(黃山道察訪)을 잠시 지냈다. 후진양성에 힘쓰다가 1612년(광해군 4)에 세상을 떠났다. 후일 병조판서에 추증되고 영천의 환구세덕사(環丘世德祠)에 봉향되었으며, 시호는 강의(剛義)이다. 후대에 『호수실기(湖叟實紀)』가 편찬되었다.

2) 장남 의번(宜蕃, 1560-1592)

세아의 장남인 의번은 1585년(선조 18) 26세로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아버지가 진사시에 합격했던 것과 비슷한 나이대였기에 아마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나이 33세때 일어난 임진왜란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

고 말했다. 아버지의 명을 받아 함께 의병을 일으켜서 영천성을 수복하는 큰 전공(戰功)을 세우기도 하였으나 이어 벌어진 경주성 탈환전투에서 적에게 포위된 부친을 살리고 자신은 종 역수와 함께 장렬히 전사하였다. 전투가 끝난 후에도 그의 시신은 끝내 발견 되지 않았다. 후일 이조참판에 추증되었으며, 정려가 내려져 충효각이 세워졌다. 환구세덕사(環丘世德祠)에 아버지와 함께 봉향되었다. 후사는 막내 동생인 수번의 둘째 아들 호례가 이었다.

3) 3남 안번(安藩, 1574-1630)

세아의 3남인 안번은 임진왜란 시 아버지와 큰형이 의병을 일으켜 전장으로 나가자 동생과 함께 피란하여 어머니를 비롯한 식솔들을 책임지는 임무를 능히 수행하였다.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는 부친을 모시고 동생을 대동하여 화왕산 회맹에 참여하였다. 1605년(선조 38) 무과에 급제한 후 북변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한 뒤 후에 용양위 부사과에 이르렀다.

안번의 장남인 호인(好仁, 1597-1655)은 1636년 병자호란 때에는 향리에서 의병을 일으켜 관군을 도왔다. 여러 고을의 수령으로 많이 임명되었고, 벼슬은 진주목사에 이르렀다. 임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는 간단한 고리짝과 서책 몇 권이 행장의 전부였을 정도로 청빈하였다고 한다. 만년에는 학문과 제자 양성에 몰두하였다. 시문집으로 『양계문집(陽溪文集)』이 있으며, 대구의 청호서원(靑湖書院)에 제향되었다.

차남 호문(好問, 1605-1650)도 정묘호란 때 경상도 호소사를 맡은 스승 장현광의 부름에 응해 창의의 대열에 참여한 바 있다.

4) 4남 수번(守藩, 1580-1621)

세아의 4남 수번은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 18세의 나이로 부형을 따라 화왕산 회맹에 참여 하였다. 1603년(선조 36) 24세에 을과 1등(전체 4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무과에 급제하였다. 화살촉의 무게가 육량에 달하는 무거운 화살인 철전을 무려 170보라는 먼 거리까지 쏘는 용력을 발휘하였다고 한다. 경상좌도 병영에서 근무 중이던 1621년 42세를 일기로 등창으로 병사 하였다. 2년 뒤인 1623년에 일어난 인조반정으로 대북파가 몰락하면서 공신호 자체가 삭탈되었다.

수번의 장남인 호의(好義, 1602-1655)는 모당 손처눌의 문인으로 병자호란 때에 창의를 한 바 있다. 동생인 호신과 함께 『상화집(常華集)』이라는 문집을 남겼다. 차남인 호신(好信, 1605-1649) 역시 모당 손처눌과 여헌 장현광의 문인으로 병자호란 때 창의를 한 바 있다.

4. 종가의 의례

호수 종가에서 전승되는 중요한 의례는 기제사, 명절제사, 호수 정세아의 불천위, 매년 4월, 하천묘역에서 지내는 묘사 등이다.

현재 호수 종가는 노종부 민옥기(1938 -)가 지키고 있다. 이 종가의 제사방식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호수 정세아의 15대 종손 정재열(鄭在烈, 1938 -1990))이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였다. 당시 차종손이었던 현 종손 정현목(鄭鉉沐, 1964 -)은 갓 결혼한 27세의 현역 육군 장교로서 근무지를 따라 멀리 거주하고 있었다. 이런 그의 처지에서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종가의 제사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문중 어른들은 대책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을 많이 내렸다. 즉 기제사는 4대봉사에서 2대봉사로 줄여 종손이 거주하는 곳에서 지방을 써서 모시되, 불천위 제사는 당분간 문중이 주도하여 종택에서 모신다는 것 등이었다.

호수 종가를 중심으로 문중에서 지내는 제사는 호수공 정세아 고비위(考妣位) 불천위 제사, 정월과 추석의 차례, 매년 4월 셋째 일요일에 지내는 하천묘역의 시제 등이다. 이 가운데 정월과 추석의 명절 제사는 사당에 제수를 진설하여 모시고 있다. 특히 하천묘역의 시제 때에는 문중의 대부분이 참석하여 제관이 삼사백명에 이를 정도로 성황을 이룬다. 원래 시제는 10월 21일에 모셔 왔으나 20여년전부터 4월로 바꾸어 지내고 있다.

호수종가 불천위 제사와 관련하여 눈길을 끄는 것은 제사를 원활하게 잘 모시기 위해 1923년에 결성된 참재소계(參齋所契)가 90여 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멀리서 말을 타고 오는 제관들의 음식이나 말먹이 비용, 노자, 재산세 등을 지원하였으나, 요즘은 제수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현재 회원은 약 500명이다.

종택은 너무 큰 집이라 노종부가 혼자 관리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1995년경 종택 앞마당 아래에 따로 살림집을 하나 지어 그곳에 기거되었다. 불천위 제사도 이곳 살림집에서 모신다고 한다. 살림집이 마련된 이후에도 2003년까지 수년간은 종택의 사랑채에서 제사를 모셨다. 하지만 여름에 비가 많이 치거나 겨울에 추위가 심해 연로한 제관들이 너무 힘이 들어 편의상 제청을 살림집으로 옮겼다고 한다. 종손은 다시 사랑채에서 제사를 모시고자 문중 어른들과 논의 중이라고 한다.

제사 음식은 종부가 노쇠하기는 하나 여전히 손수 영천과 대구 등지에서 장을 보고 제수를 준비 한다고 한다. 음식을 만들 때에는 주변의 동성 주민이 참여하여 도와준다. 특별히 제사에만 준비하는 음식이 있다든지 타 종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음식을 쓴다든지 하는 것은 없고, 일반적 제수를 마련하고 있다. 제주(祭酒)는 아직 집에서 쌀로 담근 청주를 사용하고 있다. 안동 지방의 일부 종가에서 날고기를 쓰는데 비해 호수종

가에서는 날고기를 쓰지 않으며, 도적도 크게 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송기떡을 비롯한 다양한 떡을 종류별로 많이 마련하여 쓰는 것이 다른 종가의 제사와 다른 점이라고 하였다. 불천위 절차는 예서(禮書)에서 정한 절차와 동일하고 아헌관도 종부가 하고 있다.

묘사와 관련한 것은 1978년에 결성된 하천종약회(夏泉宗約會)가 있다. 이는 이전부터 있던 하천재위계(夏泉齋位契)의 정신과 역할을 이어받은 것이다. 문중 공동의 묘역 관리를 위시하여 종가 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자손이 모두 회원인바, 총회원이 약 만 오천여 명에 달한다고 하니 이것이 호수종가의 힘이다.

하천묘역의 관리는 처음 승려를 두고 수호하다가 폐지되고, 산지기 다섯 가구를 두어 관리하였다. 이것도 시대가 변화하여 산지기 할 사람도 없어 폐지되고, ‘오천정씨 하천종약회’에서 맡아 하고 있다. 매년 4월 셋째 일요일에 시제를 지낸다. 원래 시제는 10월에 지냈으나, 4월로 옮겼다.

종약회에서는 묘사 때 유사들의 인력, 시간, 경험 등이 부족하여 원활한 진행이 어려우니 매뉴얼화하여 시행하자는 의견이 있어 전체적으로 표준화된 것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묘사상의 상차림은 표준화된 것으로 주문하여 사용한다고 한다. 이제 제수를 준비할 산지기도 없고, 종중의 사람들도 직접 만들기 어려워 제수음식 만드는 곳에 표준화된 제수음식 목록을 주고 주문하여 사용하는 형편이다.

5. 고문서와 기타

호수종가의 고문서 727점은 모두 안동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분야별로 보면, 고서류는 영일정씨세보(迎日鄭氏世譜)·오천정씨세계(烏川鄭氏世系)·호수실기난적초략(湖叟實記亂蹟抄略)·호수정공사실습유(湖叟鄭公事實拾遺)·영천복성기변파(永川復城記辨破)·포은선생집(圃隱先生集)·호수정선생실기(湖叟鄭先生實紀)·손호양선생문집(損簾兩先生文集, 정세아의 5대손 정만양·정규양 형제) 등 218종, 395점이다.

위의 고서류에서 호수정선생실기(湖叟鄭先生實紀)는 후손들이 1782년 정세아와 그의 아들 정의번의 「연보(年譜)」·「행장(行狀)」·「사실(事實)」 등을 엮어 『실기(實記)』를 편찬했다. 내용은 대부분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을 비롯한 이들의 행적을 가장 상세히 기록한 것이다. 정세아의 의병활동에 관한 기록은 정담(鄭湛, 1552-1634)이 쓴 「영천복성일기(永川復城日記)」와 1734년 박윤광(朴胤光)의 주도로 간행한 『창의록(倡義錄)』 권 2에 『화왕입성동고록(火旺入城同苦錄)』, 최현의 「임진일기(壬辰日記)」 등 여러 자료에서 보인다.

고문서류는 정세아와 장남 의번 등의 교지·상소(上疏)·소지(所志), 호적(戶籍), 명문(明文), 완문(完文), 입안(立案), 간찰(簡札)통문(通文), 치부기(置簿記), 단자(單子)·시

권(試券) · 시문(詩文) · 제문(祭文) · 행장(行狀) · 좌목(座目) 등 322점이다. 이외에 서화류(書畫類)가 5점이고, 기타 인장 · 교지함 · 편종 등이 3점이다.

6. 조사자 의견

영일정씨가 처음 영천에 입향한 것은 시조 습명의 8세 인언(仁諺)이 고려가 망할 것을 예견하고 영천(永川) 남(南)의 전촌(錢村, 영천시 도동)에 은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동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11세 문예(文裔)가 영천이씨와 혼인하면서부터이다. 대전동에는 영천이씨 이보흙(李輔欽, 1397-1457)의 윗대가 터를 잡은 곳으로 영천이씨와 혼인한 문예가 처가 곳으로 오게 된 것이다. 순흥부사 이보흙과는 처남매간이었다. 오천정씨 11세 문예(文裔)가 대전리의 입향조가 되지만, 14세 차근(次謹)이 다시 자양면 노항리로 이거하였고, 차근의 손자 호수 정세아는 노항리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호수 정세아의 손자 호례는 대전리에도 영일정씨가 토지나 거주지가 있었는지 대전리를 내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대전동에 위치한 호수 종택의 당호(堂號)는 호수(湖叟) 정세아(鄭世雅)의 호(號)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종가를 건립한 사람은 정세아(鄭世雅)가 아니라 그의 손자인 정호례(鄭好禮, 1604-1672)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례가 해남현감으로 있을 때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1660년이나 1661년경일 것이다. 그는 1636년(인조 14) 무과에 급제하였다. 1659년(효종 10)에 선전관(宣傳官)을 제수 받고, 주부(主簿)로 옮겼다가, 다시 해남 현감으로 진출되었으나 1661년에 사직하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오천종씨가 고려말 영천에 처음 입향하여 재지사족(在地士族)으로 성장하고, 호수 정세아와 그 아들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국가적인 변란이 일어났을 때 구국의 일념으로 적극적으로 의병으로 활동하였고, 학문에도 증진하고 관직에도는 나아가 헌신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후대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향촌사회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손들에 의해 집안 전승하는 문서와 의례들을 통하여서도 다음과 같이 한 집안의 생활문화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 오천정씨 호수 종택은 임진왜란의 의병장 정세아 종택으로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졌다.

종택이 17세기 처음 건축된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같이 1613년에 건립된 건물은 아닌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종택은 다른 종가에 흔히 볼 수 없는 ‘공(工)’자형인데, 이는 자손들의 공부를 장려하기 위해 지은 형식의 집이라고 전한다. 안채와 연결된 부분에 ‘빈소방’이 따로 있었다는 특징도 있다.

2. 호수 정세아와 그의 아들, 손자들에 이르기 까지 의병활동을 한 집안으로 국란극복과 애국정신을 볼 수 있는 역사적인 교훈의 장소이다.

정세아와 그의 아들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영천과 경주 등에서 의병으로 활동하였고, 그의 후손은 한말에도 의병으로 활동을 한다. 한말의 유명한 산남의진 의병장

환직(煥直, 1844-1907)이 정세아의 직계 후손이다. 그와 아들 용기(鏞基, 1862-1907) 부자는 을사늑약이 체결될 무렵 고종의 밀명을 받아 영천을 중심으로 산남의진을 결성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3.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호수 종가에서 전승되는 중요한 의례는 기제사, 명절제사, 호수 정세아의 불천위, 매년 4월 하천묘역에서 지내는 묘사 등이다.

호수종가는 1990년대 이후 제례에 대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전통적인 방식의 의례를 지키던 종손의 사망으로 현대의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종손이 집안을 이어받으면서 “변화하지 않으면 전통은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는 문중 어른들의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 시기에 문중회의를 통하여 기제사는 4대봉사에서 2대봉사로 줄여 종손이 거주하는 곳에서 지방을 써서 모시되, 다만 불천위 제사는 당분간 문중이 주도하여 종택에서 모신다는 것 등이었다.

제사 음식은 안동 지방의 일부 종가에서 날고기를 쓰는데 비해 호수종가에서는 날고기를 쓰지 않으며, 도적도 크게 쌓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송기떡을 비롯한 다양한 떡을 종류별로 많이 마련하여 쓰는 것이 다른 종가의 제사와 다른 점이라고 하였다. 제주(祭酒)는 아직 집에서 쌀로 담근 청주를 사용하고 있다. 불천위는 1923년에 결성된 참재소계(參齋所契)가 있어 지금까지 제사를 담당하고, 제례 절차는 예서(禮書)에서 정한 바와 동일하며, 아헌관도 종부가 하고 있다.

묘사와 관련한 것은 1978년에 결성된 하천종약회(夏泉宗約會)가 있다. 이는 이전부터 있던 하천재위계(夏泉齋位契)의 정신과 역할을 이어받은 것이다. 묘사상의 상차림은 표준화된 것으로 주문하여 사용한다고 한다. 이제 제수를 준비할 산지기도 없고, 종중의 사람들도 직접 만들기 어려워 제수음식 만드는 곳에 표준화된 제수음식 목록을 주고 주문하여 사용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호수종택의 의례를 통하여 제례의 전통적인 모습과 변화양상을 찾아 볼 수 있다.

4. 고문서 및 전적 727점은 모두 안동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이 종택의 고문서는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자료들이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의병활동과 관련한 여러 자료들이다.

정세아와 그의 아들 정의번의 「연보(年譜)」 · 「행장(行狀)」 · 「사실(事實)」 등에는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을 비롯한 이들의 행적을 가장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영천복성일기(永川復城日記)」와 『화왕입성동고록(火旺入城同苦錄)』, 「임진일기(壬辰日記)」 등 여러 자료에서도 보인다.

이와 같이 오천정씨 호수종택은 한 가문의 역사적인 변화상, 향촌사회에서 역할, 전통의 계승과 변화 등을 규명해 볼 수 있는 역사·문화적인 자료가 전승되는 공간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요건에 필요한 역사성, 학술성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영천 호수종택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자 : ○○○ 문화재위원

① 문화재 종류 ; 국가민속문화재

② 문화재 명칭 ; 영천 호수종택(永川 湖叟宗宅)

③ 연혁·유래 및 특징 ;

건물의 당호는 임란때 의병장으로 출전하여 영천성수복과 경주성탈환전투에 참가하여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으로 책록되고 자헌대부 병조판서(영조년간)에 증직된 호수(湖叟) 정세아(鄭世雅)의 호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정세아는 영일정씨 지주사공파(知奏事公派)인 포은 정몽주의 일족으로 고려시대부터 영천에 입향하여 세거해온 가문이다. 그리고 정세아는 1788년 정조12년에 강의(剛義)라는 시호를 받아 불천위(不遷위)의 지위를 얻게 되어 사당에 봉향되고 종택으로서 지위를 얻게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현 종택은 정세아가 생전에 건립한 것이 아니고 그의 손자인 정호례(鄭好禮;1604~1672)때인 광해군5년(1613년)에 건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613년은 정호례가 10살 되던 해이므로 정호례가 건립할 수 없어 문중에서 정세아가 졸한 다음 해에 종택과 사당을 건립하였음이 더 신빙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문중의 전언에 따르면 임란 중 정세아의 장남 의번(宜藩)이 경주성전투에서 사망 후 어머니 윤씨가 이곳으로 옮겨와 기거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의 안채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란 이전에도 이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1613년 쯤 개축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으나 정확한 건립년대는 확인되지 않는다.

④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건축적 가치]

1. 배치 ;

구룡산을 배산(背山)하여 남동향으로 자리한 工字形 평면의 본채와 본채 좌측 높은 위치에 본채보다 남쪽으로 더 가깝게 자리한 사당이 종택 일곽을 이루고 있다.

본채는 정침채, 사랑채, 문간채 3개부분으로 구획된다. 건물의 구조상으로는 높은 곳에 자리한 정침채와 한단 낮게 건립된 문간채부분이 공자형을 이루고 문간채 좌측부분, 즉 사당과 근접하여 사랑채를 두어 전면에 언 듯 하나의 건물로 인식되나 구조상으로는 분리되어있다. 그리고 정침채와 문간채를 이어주는 익사는 대지의 경사에 따라 기단을 조성한 후 건물을 세워 낮은 부분인 부엌부분은 상부에 다락을 설치한 이층으로 꾸몄다.

정침채로의 출입은 문간채 대문간을 이용하고 사랑채로의 출입은 사랑좌측편을 이용하

여 사랑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동선을 유도하는 한편 찬실과 고방이 있는 우측편은 외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성격에 따른 동선구분이 확연하다.

2. 본채

1) 사랑채

종택 정면 좌측편이 사랑채이며 4칸 홀처마 맞배기와지붕 건물이다.

좌측 2칸에 사랑대청을 두고 우측에 온돌방 2칸을 배치했다. 온돌방은 가운데 4짝미 서기문으로 방을 구획하면서 마루와도 3짝들문을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4칸 모두를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마루와 접하고 있는 온돌방은 전면 쪽으로 하부에 통머름을 둔 쌍여닫이문을 두고 뒤편 온돌방 역시 하부에 통머름을 둔 외여닫이문을 설치하였으며 마루와는 가운데 세살청판외여닫이문을 두고 좌우에 만살들문을 설치하였다.

사랑대청 배면과 좌측은 하부에 머름을 두고 중간설주가 있는 영쌍창(楹雙窓)이 설치되고 좌우는 판벽으로, 중방상부는 심벽으로 마감하였다. 사랑채의 창호구성수법에서 통머름설치와 영쌍창은 고식(古式)의 기법을 지니고 있다. 온돌방의 아궁이는 사랑채 우측편 박공 아래에 설치하여 2칸을 통으로 고래를 설치한 듯하며 굴뚝은 일반 민가에 서는 예가 드물게 사랑채 배면 장독대 전면에 설치하였다.

상부구조는 납도리에 제형판대공(梯形板臺工)을 세운 장식성이 없는 간결한 삼량구조이며 전후 모서리기둥 장여하부에 도리방향으로 뿔목보강하여 맞배지붕 측면처마 내밀기를 보강시켰다.

2) 문간채

사랑채 우측편에 자리하고 정면 5칸, 측면 1칸의 일자형 맞배기와지붕 건물이다.

정침으로 들어가는 대문간을 중심으로 좌측에 고방, 우측에 안채익사와 연결되면서 부엌에서 이용되는 고방이 자리하고 우측으로 고방 1칸과 온돌방 1칸이 연접되어 문간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우측편 온돌방은 초당방이나 행랑방으로 사용된 듯하며 고방은 외부에서 직접 수장이 가능토록 하여 용도에 따른 출입방법을 달리 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사랑채와 접하하는 좌측의 고방은 내정(內庭)에서만 사용이 가능토록 내정 쪽으로 출입문이 설치되고 대문간 우측 고방은 부엌에서 직접 사용하는 고방이다. 따라서 고방에 수장하는 수장품의 내용에 따라 고방의 설치위치를 달리하였고 수장의 기능에 맞도록 하벽은 판벽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문간채와 사랑채 사이를 벽체로 막아 언 듯 문간채와 사랑채가 연결된 듯 하나 지붕의 높이를 달리함으로써 건물의 차별성을 두었으며 우측 온돌방의 연돌은 배면 우측 뒤편에 건물과 이격시켜 설치하였다.

문간채 상부가구는 사랑채와 동일하게 삼량홀처마 맞배지붕건물이나 주고(柱高)를 사랑채보다 짧게 잡아 지붕 용마루와 처마선이 사랑채보다 한단 정도 낮게 꾸몄으며 건

물모서리 보강등 건축수법은 사랑채와 동일하였다.

3) 정침채

경사지에 자리한 관계로 높은 기단을 축조한 후 건립된 정침채는 정침부분과 익사가 남북으로 연결되면서 T자형평면을 이루고 있다.

정침부분의 간살설정이 다소 이색적이다. 일반적으로 민가평면에 전퇴를 두는 경우는 일반적이나 여기서는 중앙간 전후에 반간 폭의 퇴간을 두었다. 이러한 간살설정은 안대청 우측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나 안방 우측편 기둥간살은 좌측과는 달리 2간으로 구획되면서 찬실마루방과 찬실이 연결된다. 그리고 안방과 연결되는 익사부분은 1간 폭에 남북으로 3간을 연결시키고 부엌상부는 안방에서 출입하는 다락을 얹진 중층형(重層形)으로 문간채와 연결시켰다.

평면구성은 2간의 안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둔 중당협실형(中堂夾室形)이나 좌측 서상방(西廂房) 앞은 퇴칸마루를 두었다. 서상방은 안어른이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안방은 남북방향으로 3간통으로 매우 넓다. 안방 아랫목 쪽에는 부엌상부 다락으로 오를 수 있는 문과 계단을 대신한 받침목 한 개를 설치하였고 부엌에서 안방으로 내왕할 수 있는 작은 문을 두었다. 그리고 대청과 접하는 부분에는 궁관을 둔 외여단이 세살문이, 뒤편 퇴칸부분에도 외여단이문이 시설되어있으나 전면쪽 문보다는 높지 않다. 그리고 대청 배면 쪽은 사랑채 창호와 동일하게 하부에 머름을 두고 중간설주가 있는 영창창이 매간 설치되어있고 창 좌우는 판벽으로 마감하였다. 그러나 문틀의 결구방법에서 문설주를 하방에서 장여까지 길게 세우고 문상방과 하방은 설주사이에 걸쳐 문얼굴을 만들었다. 그리고 서상방의 대청과 접하는 문은 안방과는 달리 하부에 통머름이 설치된 외여단이창을 설치하였고 퇴칸마루와 면하는 전면 쪽은 머름위에 온연귀맞춤으로 문틀을 짰 쌍여단이 세살문을 설치하였다. 안대청과 서상방 전면 퇴칸마루사이와 퇴칸마루 좌측에도 과거 문을 설치한 반연귀맞춤의 문틀이 남아있으며 특히 서상방 전면 기둥만 원주(圓柱)를 사용하여 용도에 따른 건축수법의 차별성과 창호 설치에 따른 공간구획방법이 이채롭다.

안방과 연결되는 찬실부분의 용도는 장례시 시신을 모시는 공간이라 한다. 내부에서는 안방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다. 마루방은 전면에 외여단이판문과 판벽으로 막았으며 판문의 시근장치는 내측에 두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도록 처리하였다. 안방 아래쪽에 자리하고 있는 부엌은 문간채 고방을 포함하여 3간규모로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안방과 연하여 부뚜막이 설치되고 좌우벽은 환기창과 판벽으로 마감되고 좌우에 외부와 연결되는 쌍여단이 판문이 시설되어있다. 그리고 안방에서 들 수 있는 다락은 바닥을 마루를 깔고 내측으로 매간 쌍여단이 판문을 설치하였으나 외측은 1간만 판문을 두었다.

정침채 가운데 정침부분 상부가구는 장여받침한 굴도리 5량구조(5樑構造)이며 사분변작(四分變作)하였다. 기둥상부는 전면 가운데 기둥 2본 위에만 초익공으로 장식하고 측

면과 배면은 기둥위에 주두(柱頭)를 얹었으나 익공은 생략하고 창방과 장여사이에 소로수장으로 마무리하였다. 익공살미 내측은 선각(線刻)된 보아지로 장식하고 대청상부 종량은 접시받침에 보방향으로 내단(內端)을 보아지형식으로 선각한 뿔목을 받치고 종량을 걸친 후 종량위에는 파련형(波蓮形)으로 선각하고 투각(透刻)한 대공판(臺工板)에 도리방향으로 공아를 끼워 종도리를 받도록 처리한 파련대공으로 종도리를 지지토록 하여 장식성이 매우 강하다. 그리고 온돌방부분은 대청상부와 달리 내진주(內陳柱)위에서 합보를 시키고 측면에서 걸쳐진 도리와 주두를 얹은 주상에서 결구된다.

안방과 부엌이 설치된 익사부분은 3량구조로 익사와 안채부분의 처마도리는 연결되나 익사종도리는 안채 종도리에 연결시키고 찬실부분도 익사와 동일하게 3량으로 상부구조를 결조하여 지붕모양이 5량으로 꾸며진 안채 좌측부는 팔작지붕으로 만들고 3량으로 처리된 찬실부분은 맞배지붕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배면의 처마를 안채와 동일하게 마감시키기 위하여 찬실부분 용마루를 안채 종도리높이인 내림마루 단부와 연결시키는 재치있는 기법도지니고 있으며, 정면에서 보이는 익사의 맞배부분은 풍판으로 마감하였다. 정침채 연돌 역시 사랑채와 동일하게 배면 쪽에 건물과 이격시켜 설치하였다.

4) 사당

본채 좌측 담장 밖 높은 언덕위에 자리하고 있는 사당은 주변에 경사에 따라 층단방향토장(層段方形土牆)을 두르고 전면에 사각문(四角門)을 두어 사당으로 출입토록 하였다. 그리고 과거 사당 주변에 대나무를 식재하여 사당에서 본채 쪽으로 조망되지 않도록 차폐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본채 쪽의 대나무를 제거하여 외부에서 사당이 잘 조망되면서 사당에서 안채가 내려다보인다.

사당은 자연석기단 위에 정면 3칸 측면 1칸 삼량구조의 홑처마 맞배지붕건물이다. 내부는 마루가 시설된 3칸통이며 정면 좌측간에 불천위(不遷位) 감실을 별도로 설치하였고 어간과 우협간에 조부모, 부의 신위를 마련하고 있다.

정면 어간은 궁판을 댄 쌍여닫이골판문을 설치하고 좌우는 골판벽으로 마감하였고 좌우협간은 외여닫이골판문에 골판벽으로 마감하였다. 그리고 좌우측벽에 창을 두어 내부가 밝다.

건축구조는 상부를 평활하게 치석한 초석위에 원주를 세우고 초익공을 설치한 3량구조이다. 대공의 형태는 파련문이 선각된 파련형대공에 도리방향으로 첨차형 공아를 끼워 장식하였고 전면 쪽 익공뒤편리는 선각된 보아지로 대량을 보강한 반면 배면은 외부 쪽으로는 장방형뿔목으로 처리하고 내부만 전면과 동일하게 선각된 보아지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양측면 대공은 동자주형으로 간결하게 처리하였다.

파련대공과 내측 보아지부분만 당초문을 시채하였고 다른 부분은 굿기단청으로 처리하였으며 경상도 특유의 단청 색조인 차분한 녹색계열이다.

지붕은 전면만 겹처마로 하고 배면은 홑처마로 하여 전면의 장식성을 높였으며 양측

면 풍판을 단 맞배지붕을 올렸다.

⑤ 종합의견

조선시대 반가의 남녀공간구분 및 위계에 따른 건축평면구성방법과 배치방법을 잘 따르면서 대지에 순응하여 짜여진 공자형평면구성법과 고식의 창호구성방법 및 익공의 치목기법, 상부가구 결구법 등에서 종택의 건축적 특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찬실이라는 특별한 기능의 방과 용도에 따른 배치법, 서상방의 장식성, 연돌의 설치법 등에서도 민속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정 보존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천(永川) 호수종택(湖叟宗宅)」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조사 의견서

조사자 : ○○○ 문화재전문위원

1. 대상유적 : 영천 호수종택(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90호)

2.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대전길 137-35(대전동 52)

3. 창건과 변천

‘호수종택(湖叟宗宅)’은 ‘호수(湖叟) 정세아(鄭世雅, 1535~1612)’의 불천위를 모시는 영일정씨 지주사공파 백암문중의 종가(宗家)로, 임진왜란 당시 정세아와 그의 장남인 정의번(鄭宜藩, 1560~1592)이 함께 의병으로 활동한 공을 인정받아 1784년 정의번에게는 정려(旌閭), 1788년 정세아에게는 ‘강의(剛義)’의 시호(諡號)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종택은 경상북도 영천시 대전리 마을 안쪽 구룡산 아래에 남동향을 하여 자리 잡고 있으며 정세아의 손자인 정호례(鄭好禮, 1604~1672)에 의해 1613년 건립된 것으로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종택은 크게 본채와 사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채는 다시 안채와 사랑채, 문간채 영역으로 구분되고 이들 각 채는 소위, ‘工’자형의 배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배치 형태는 소위, 풍수사상 등에 의해 일반적으로 살림집에서 채용하지 않는 형태로 알려져 있어 최초 건립당시의 모습인지 후에 변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즉, 1977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당시의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후손들의 공부를 장려하기 위해 ‘工’자 형태로 건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문중에 전해져 오는 전언에 의하면, 임진왜란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주택을 1613년쯤인 정호례 대(代)에 이르러 오늘날의 모습과 같이 증·개축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호수종택은 종가로서의 생활문화가 잘 이어지고 있고 또한 역사적, 인물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 최초 1977년 ‘정씨종택 및 사당’으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90호 지정되었으나, 1985년에 ‘정씨(鄭氏)’의 본관이 다수이므로 구별되지 않는다 하여 정세아의 호를 붙여 ‘호수종택’으로 지정 명칭을 변경 하였다. 종택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4. 건축구조 및 양식

종택은 구룡산이라고 부르는 야산을 등지고 남동향을 하여 자리 잡고 있으며 안채, 사랑채, 문간채로 구성된 본채를 중심으로 북서쪽의 뒤편으로 사당이 위치하고 있다. 뒤편 쪽 야산의 경사면에 면하여 전체적으로는 전저후고(前低後高)의 지형에 입지하고 있어

문간채-안마당-안채로 이어지는 건물의 고저차는 기단의 높낮이로 조정하고 있다.

본채는 안채와 사랑채, 문간채 영역으로 구분되며 丁자형의 안채 앞쪽으로 一자형의 사랑채와 문간채가 연결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工자형의 특이한 배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치 형태의 의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工자형의 배치 방식은 과거부터 풍수사상 및 불리한 환경조건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살림집에서는 상용하지 않았고 ‘도산서원의 농운정사’와 같이 특정 시설의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거시설로 건립된 ‘보은 우당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134호)’의 경우는 풍수사상에 대한 지관의 해석에 따른 결과로 알려져 있다.

호수종택의 경우,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으나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당시의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후손들의 공부를 장려하기 위해 ‘工’자 형태로 건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확실한 근거는 없다. 이와 달리, 문중에서 제출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에서는 문중측에 전해져 오는 전언과 관련 사료의 정황에 따라 임진왜란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주택을 1613년쯤인 정호례 대(代)에 이르러 오늘날의 모습과 같이 증·개축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안채 좌익랑채의 동쪽 밖으로 뻗어 나온 2칸의 실이 과거 특정 기간에 한하여 찬실과 부속실로 사용된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안채가 건립된 이후에 덧 달아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살펴볼 때, 사랑채와 문간채 등을 포함한 현재 호수종택의 전체적인 배치가 완성된 시점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요청 자료 보고서’에 의하면 치목 및 장식 등 건축수법을 미루어 보아 최초 안채가 건립된 후 사랑채가 세워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따라서 호수종택의 중요한 건축적 가치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배치 형태에 대해서는 건립 당시에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인지, 아니면 후대에 변형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아 현재로서 이에 대한 평가를 단정 지을 수 없다.

종택을 구성하고 있는 각 영역별 구성공간들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안채는 정면3칸×측면2칸 규모로 1칸 반의 방과 대청마루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면으로는 3칸 모두 텃마루를 설치하였다. 안채 좌측편으로는 일종의 익랑채를 앞으로 길게 달아내어 방과 부엌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익랑채의 안방 좌측편으로 다시 우물마루를 깔은 마루방과 온돌방 각 1칸씩을 설치하였다. 문중측 전언에 의하면, 온돌방은 과거 찬실의 기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생활공간인 안채, 사랑채 등과는 동선을 달리하여 별도의 출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안채에서는 마루방을 통해 찬실로의 이동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찬실과 대칭되게 문간채에 연이어 1칸씩의 고방과 온돌방을 설치하여 찬실의 부속공간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들 공간으로 인해 본채의 전체적인 배치 형태가 工자형을 이루게 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익랑채의 부엌 상부에는 바닥에 우물마루를 설치한 다락방을 구성하여 저장공간으로 사용하였으며 안방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외부에도 쌍여닫이의 판문(板

門)을 달아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부엌에는 원형의 것으로 보이는 살창이 그대로 잘 남아 있지만, 아궁이 등의 시설은 후에 새로 개조한 것으로 보인다.

가구는 5량가의 홀처마 초익공집으로 짜여졌으며 대청마루의 대들보 위에는 간략한 형태의 포대공, 종보에는 화반대공을 설치하였고 또한, 안채에만 원기둥을 사용하는 등 사랑채 등에 비해 안채의 격식을 높게 장식 처리하였다. 익랑채는 3량가의 민도리집으로 짜여졌으며 전·후 기둥열에 맞춰 대들보를 설치하고 그 위에 동자주를 세워 종도리를 받게 하였다.

- 사랑채는 문간채 좌측으로 一자형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정면4칸×측면1칸 규모이며 2칸의 사랑마루와 2칸의 사랑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랑마루의 정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배면과 좌측면에는 판문을 달았고, 온돌방 정면과 후면에는 세살청판문을 설치하였다. 가구는 3량가의 홀처마 민도리집으로 짜여졌으며 사랑대청 위 대들보 상부에 동자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게 하였다. 사랑마루 옆으로는 협문을 설치하여 안채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관련 기록을 보면, 본래 초가지붕의 협문이었으나 일정기간 동안 소실된 후 1996년 현재와 같이 기와지붕으로 새롭게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 문간채는 정면5칸×측면1칸 규모로 대문칸을 중심으로 좌측으로 고방 1칸, 우측으로 고방 2칸과 방1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좌측 고방 옆으로 사랑채와의 사이 공간을 심벽으로 막아 정면에서 보면 사랑채와 문간채가 一자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벽의 처리 수법으로 보아서는 문간채와 사랑채가 같은 시기에 건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각각의 건립 시기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호수종택의 배치 형태는 각 채들이 순차적으로 건립되어 현재의 工자형 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문간채의 각 실들 중 우측 끝에 위치한 1칸의 온돌방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문간과 고방으로 구성됨에 따라 외부 벽체는 판벽과 판문으로 처리하였고 온돌방에는 외여단이 세살문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사당은 호수 정세아의 불천위를 모신 곳으로 본채의 북서쪽 뒤편에 비교적 높은 지형에 자리 잡고 있다. 정면3칸×측면1칸 규모로 내부는 통칸으로 구성하였으며 바닥에는 우물마루를 깔았다. 사당의 네면으로는 기와를 얹은 토석담장으로 둘러쌓았고 전면 중앙에는 기와지붕의 사주문을 세웠다. 사주문의 지붕 처마가 과도하게 뻗어 나와 있는데, 관련 기록에 의하면 중수가 있었던 보인다. 가구는 3량가의 홀처마 초익공집으로 짜여졌으며, 내부 대들보 위에 화반대공을 놓아 상부의 종도리를 받게 하였으나, 양쪽 박공면에는 동자대공을 사용하였다.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경우, 통상 사당이 본채의 동측편에 자리 잡고 있는데 반해, 호수주택은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종의 제례공간인 찬실이 안채(익랑채) 동쪽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원인으로 삼는다면, 현재의 사당은 지금의 종택 모습을 갖추게 된 1613년 이후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세아의 불천위가 내려진 1788년

쯤으로 추정된다.

5. 지정가치

- ☐ 호수종택은 종가로서의 생활문화가 잘 이어지고 있고 또한 민속적, 역사적, 인물적 측면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종택의 건립년대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고 더군다나 종택이 갖고 있는 중요한 건축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ㄱ자형 배치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여 국가민속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 ☐ 이밖에, 사랑채와 문간채 건립에 대한 건축적 내력 등을 비교적 명확히 파악할 수 없고 또한, 최초 건립당시와 비교해 변형의 유무 및 정도를 알 수 없다.
- ☐ 따라서 국가민속문화재로의 승격 지정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보 고 사 항

21. 안동 하회마을 지정구역 조정(예고) 처리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예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추진경과

① 안동 하회마을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요청(안동시, 2017. 9. 13.)

② 2018년 제1차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민속-세계유산)회의(2018. 2. 13.)

* 구역조정 대상지의 난개발 및 경관훼손 방지대책을 제출받아 소위원회 구성하여 조정여부 결정할 것

③ 지정구역 조정 관련 보완자료(난개발 및 경관훼손 방지대책)제출(안동시, 2019. 1. 10.)

안동시에서는 효부골 일원에 대하여 「역사문화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동시 경관계획(2018.2.19.)’ 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 기준에 따라 엄격한 관리를 추진할 예정임

④ 2019년 제1차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민속-세계유산) 소위원회(2019. 1. 15.)

* 원안가결

⑤ 문화재구역 조정예고 공고(‘19.1.31. ~ 3.1.)

다. 조정내용

(1) 신 청 인 : 안동시장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3) 조정내용 :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문화재 지정구역 변경

○ 당초 1,577필지 6,495,535㎡, ⇒ 변경 1,554필지, 6,484,820㎡(감 10,715㎡)

○ 주요내용 : 마을 입구를 병산삼거리 부근에서 고개마루(금줄 설치 지점)로 조정

라. 향후계획

○ 30일 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이후 문화재위원회 최종심의 예정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22. 2019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가. 보고사항

2019년도 근대문화재과 소관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국가민속문화재) 추진계획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개요

- 2019년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보고내용임
- ※ 보조사업 대상 선정 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음
 - 1차평가위원회('18.8.3) : 남해경, 홍형순, 남효대, 이용준, 이천우 위원, 문화재청 관계자
 - 2차평가위원회('18.11.30) : 장석하, 남효대위원, 문화재청 관계자

다. 주요내용

(1) 보 고 자 : 문화재청장(근대문화재과장)

(2)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전체 135건(217억) *국비기준

구 분		'18년	'19년	비 고
국가민속 문화재	고택	66건, 49억	52건, 73억	▲24억, 48%
	민속마을	5건, 46억	5건, 56억	▲10억, 21%
세계유산 보존관리 (경주 양동, 안동 하회)		2건, 8억	2건, 78억	▲70억
초가이영 잇기		66건, 8억	76건, 10억	▲2억, 25%
방충·방염 사업		2억	-	
합 계		113억	217억	▲104억, 92%

○ 사업기간 : '19. 2월 ~ 사업종료 시까지

(3) 사업추진방법

- 문화재청 : 지방자치단체(시·도)에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지침 시달, 문화재청 소관과 사업검토 및 승인, 기술지도
- 지방자치단체 : 설계도서 작성 및 사업시행
 - ※ 사업 시행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 문화재위원회의 별도 심의 가능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 붙임 1. 2019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국민) 세부현황 1부
 2. 2019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추가이영잇기 세부현황 1부

[붙임 1] 2019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국민) 세부현황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9년 예산 반영액 (단위 : 천원)		
			국비	지방비	계
국가민속문화재 제261호	대구 백불암 고택	백불암고택보본당변와보수및부식목재교체 - 배면기둥 등바리 및 교체, 기단보수 주변정비	182,000	78,000	26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89호	대전 동춘당 종택	별묘 산자이상 해체보수	29,400	12,600	42,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89호	대전 동춘당 종택	배수로 정비	5,740	2,460	8,200
국가민속문화재 제290호	대전 소대현·호연재 고택	고택안채지붕정비 고택가묘벽체보수	28,000	12,000	4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23호	수원 광주이씨 고택	헛간채 벽체 보수 및 사랑채 벽체 보수	19,726	8,454	28,180
국가민속문화재 제126호	여주 보통리 고택	보수정비 기본계획	67,200	28,800	96,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27호	이천 어재연 고택	기단 및 담장 보수	29,540	12,660	42,200
국가민속문화재 제33호	삼척 신리 너와집과 민속유물	물레방아지리지목및버팀목보수 강봉문가옥창고해체보수 강봉문가옥안채화장실보수 김진호가옥화장실지붕보수 강봉문가옥화장실지붕보수	94,500	40,500	135,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21호	삼척 대이리 너와집	지붕보수	119,000	51,000	17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39호	보은 최감찰택	사랑채,대문채,협문 보수	140,000	60,000	20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43호	음성 공산정 고택	사랑채 및 안채 기와 보수	17,500	7,500	25,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73호	논산 백일헌 종택	보수정비기본계획 수립	63,000	27,000	9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92호	부여 여흥민씨 고택	고택석축정비 별채마당,담장,석축,배수로정비	315,000	135,000	45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33호	아산 외암마을 건재 고택	건재고택 매입	2,100,000	900,000	3,00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	아산 용궁택	종합정비계획 수립	49,000	21,000	7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96호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창호 교체	1,400	600	2,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98호	홍성 사운 고택	재실개축 문간채보수	259,000	111,000	370,000
국가민속문화재	정읍 김명관 고택	안채,행랑채기단보수	859,600	368,400	1,228,000

제26호		토지매입			
국가민속문화재 제26호	정읍 김명관 고택	안행랑채(우측)해체보수	105,000	45,000	15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6호	정읍 김명관 고택	주변환경조사 및 정비활용에 관한 학술연구	140,000	60,000	20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51호	나주 계은 고택	안채 및 사랑채 구들장 보수	38,500	16,500	55,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51호	나주 계은 고택	문간채 보수	224,000	96,000	32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63호	나주 남파고택	안사랑채 복원	315,000	135,000	45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63호	나주 남파고택	배수로 및 주변정비	35,000	15,000	5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67호	무안 유교리 고택	사랑채보수 꽃간채기둥등보수	52,500	22,500	75,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62호	보성 열화정	마루 보수	32,900	14,100	47,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58호	보성 이승래 고택	석축 정비	15,400	6,600	22,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57호	보성 이정래 고택	연지준설 및 잡목 제거	18,900	8,100	27,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59호	보성 이진래 고택	판벽보수 기둥드잡이	14,000	6,000	2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63호	보성 이용우 고택	석축 및 배수로 정비	44,275	18,975	63,250
국가민속문화재 제163호	보성 이용우 고택	안채구들해체보수 꽃간채드잡이	84,000	36,000	12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56호	보성 울어리 고택	안채동바리설치및인방재교체 안채배면석축정비	84,000	36,000	12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57호	보성 이정래 고택	문간채 해체보수 공사	149,520	64,080	213,600
국가민속문화재 제164호	영암 삼성당 고택	안채보수 문간채보수 담장보수	61,600	26,400	88,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70호	장흥 오헌고택	석축정비	14,700	6,300	21,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54호	화순 학재 고택	구들 및 고막이 보수	21,000	9,000	3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7호	경주 최부자택	별당채 복원(가설,전기,보고서 작성 등)	56,000	24,000	8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기록화 사업	34,300	14,700	49,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69호	봉화 만회 고택	기록화 사업	31,500	13,500	45,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49호	봉화 송석헌 고택	기록화 사업	34,300	14,700	49,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92호	봉화 선성김씨 빈동재사	재사 정비 실시설계	39,130	16,770	55,900
국가민속문화재 제293호	봉화 서설당 고택	기단정비 배수로정비 마당정비	35,000	15,000	50,000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계서당 종택	시굴 및 정밀발굴 용역	29,400	12,600	42,000

제171호					
국가민속문화재 제279호	봉화 만산고택	번와보수	84,000	36,000	12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04호	안동 안동권씨 소등재사	주사채 보수	165,200	70,800	236,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67호	안동 귀봉종택	마당배수체계정비 담장정비	49,000	21,000	7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84호	안동 허백당 종택	담장보수 협문보수	35,000	15,000	5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79호	안동 학암고택	안채번화보수 기단보수 곶간채기둥보수	42,000	18,000	6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02호	안동 권성백 고택	마루정비 기단보수	21,000	9,000	3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91호	안동 진성이씨 종택	종합정비계획 수립	49,000	21,000	7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86호	영덕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택	석축보수 배수로정비 사당지붕정비	105,000	45,000	15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4호	영천 매산 고택과 산수정	사당지붕보수 협문보수 배수체계정비	42,000	18,000	6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85호	예천 함양박씨 희이재사	안채지붕보수 창고벽체보수	56,000	24,000	8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37호	의성 소우당 고택	보수정비 기본계획 수립	70,000	30,000	10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72호	청송 성천택	본채 지붕 보수	56,000	24,000	8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50호	청송 송소 고택	담장보수 장독대,협문보수	28,000	12,000	4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82-1호	평산신씨 관사공파 종택	별채보수공사(추가)	140,000	60,000	20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05호	거창 동계 종택	담장 보수	33,600	14,400	48,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08호	함안 무기연당	기록화보고서	49,000	21,000	7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86호	함양 일두 고택	대문채해체보수 중문채지붕보수 안곳간채지붕보수 광채지붕보수	152,250	65,250	217,500
국가민속문화재 제235호	고성왕곡마을	변형퇴락가옥정비 초가이영잇기 경미보수	401,800	172,200	574,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35호	고성왕곡마을	저잣거리(추가)조성사업1차 체험관신축,식당신축,체험관마당 밋부지정비 주변정비1식	854,000	366,000	1,22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외암마을	초가이영잇기 퇴락가옥보수 돌담장보수 싸림문보수	1,750,000	750,000	2,500,000

		경미보수 마을내환경개선 저장거리시설확충 마을입구주차장확장토지매입및 포장			
국가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외암마을	마을기반시설 정비 기본계획 수립	350,000	150,000	50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55호	성주한개마을	초가이영잇기 둘레길조성(2019) 변형퇴락가옥정비 경미보수	595,000	255,000	85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55호	성주한개마을	석축 정비	49,000	21,000	7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초가이영 잇기	140,000	60,000	20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마을안길 포장공사	70,000	30,000	10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	제주 성읍마을	변형퇴락가옥정비 야외공연장정비 국가지정가옥정비 노후성곽정비 가옥조사 초가지붕잇기보상및터발관리 초가체험장조성 마을경미보수	1,521,585	652,108	2,173,693
국가민속문화재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경미보수 초가이영잇기 퇴락가옥정비 마을 내 수목 등 정비 경로당 신축 저장거리 정비	4,436,000	1,901,142	6,337,142
국가민속문화재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채선충방제	70,000	30,000	10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경주 양동마을 안길 정비공사	70,000	30,000	10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퇴락가옥정비 경미보수 초가이영잇기 마을기반시설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방문객센터 토지매입	3,117,100	1,335,900	4,453,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방문객센터건립 기본계획 수립	210,000	90,000	300,000

[붙임]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9년 예산 반영액 (단위 : 천원)		
			국비	지방비	계
국가민속문화재 제200호	달성 조길방 고택	초가이영 잇기	8,792	3,768	12,560
국가민속문화재 제104호	달성 삼가현 고택	초가이영 잇기	2,002	858	2,860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	남양주 궁집	초가이영 잇기	30,142	12,918	43,060
국가민속문화재 제123호	수원 광주이씨 고택	초가이영 잇기	23,520	10,080	33,600
국가민속문화재 제127호	이천 어재연 고택	초가이영 잇기	15,400	6,600	22,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25호	화성 정수영 고택	초가이영 잇기	19,600	8,400	28,000
국가민속문화재 제5호	강릉 선교장	초가이영 잇기	40,600	17,400	58,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39호	보은 최감찰택	초가이영 잇기	42,000	18,000	6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34호	보은 우당 고택	초가이영 잇기	7,000	3,000	1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32호	영동 소식 고택	초가이영 잇기	4,900	2,100	7,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40호	영동 규당 고택	초가이영 잇기	4,900	2,100	7,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44호	영동 성장환 고택	초가이영 잇기	28,000	12,000	4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43호	음성 공산정 고택	초가이영 잇기	5,600	2,400	8,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37호	제천 박용원 고택	초가이영 잇기	16,338	7,002	23,340
국가민속문화재 제148호	제천 정원태 고택	초가이영 잇기	26,600	11,400	38,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	청주 고은리 고택	초가이영 잇기	18,900	8,100	27,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35호	충주 윤양계 고택	초가이영 잇기	4,270	1,830	6,100
국가민속문화재 제190호	논산 명재 고택	초가이영 잇기	13,300	5,700	19,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92호	부여 여흥민씨 고택	초가이영 잇기	8,400	3,600	12,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93호	부여 군수리 고택	초가이영 잇기	15,400	6,600	22,000
사적 제116호	서산 해미읍성	초가이영 잇기	28,000	12,000	4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99호	서산 경주김씨 고택	초가이영 잇기	1,750	750	2,500
국가민속문화재 제197호	서천 이하복 고택	초가이영 잇기	14,700	6,300	21,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	아산 용궁택	초가이영 잇기	5,600	2,400	8,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91호	예산 오추리 고택	초가이영 잇기	10,500	4,500	15,000
사적 제230호	천안 유관순 열사 유적	초가이영 잇기	14,000	6,000	2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98호	홍성 사운 고택	초가이영 잇기	8,400	3,600	12,000
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	고창 신재효 고택	초가이영 잇기	35,000	15,000	50,000
명승 제33호	광한루원	초가이영 잇기	37,100	15,900	53,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50호	부안 김상만 고택	초가이영 잇기	98,000	42,000	140,000
사적 제293호	정읍 전봉준 유적	초가이영 잇기	18,200	7,800	26,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6호	정읍 김명관 고택	초가이영 잇기	13,832	5,928	19,760
국가민속문화재 제252호	강진 영랑생가	초가이영 잇기	25,900	11,100	37,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55호	곡성 제호정 고택	초가이영 잇기	4,900	2,100	7,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51호	나주 계은 고택	초가이영 잇기	5,600	2,400	8,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63호	나주 남파고택	초가이영 잇기	8,400	3,600	12,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67호	무안 유교리 고택	초가이영 잇기	14,000	6,000	2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63호	보성 이용우 고택	초가이영 잇기	8,400	3,600	12,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56호	보성 읍어리 고택	초가이영 잇기	9,800	4,200	14,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60호	보성 이준희 고택	초가이영 잇기	14,000	6,000	2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92호	순천 낙안읍성 이방택	초가이영 잇기	12,957	5,553	18,510
국가민속문화재 제93호	순천 낙안읍성 들마루집	초가이영 잇기	7,625	3,268	10,893
국가민속문화재 제94호	순천 낙안읍성 뽕창집	초가이영 잇기	6,175	2,646	8,821
국가민속문화재 제95호	순천 낙안읍성 마루방집	초가이영 잇기	4,926	2,111	7,037
국가민속문화재 제96호	순천 낙안읍성 대나무 서까래집	초가이영 잇기	5,331	2,285	7,616
국가민속문화재 제97호	순천 낙안읍성 ㄱ자집	초가이영 잇기	6,242	2,675	8,917
국가민속문화재 제98호	순천 낙안읍성 주막집	초가이영 잇기	3,104	1,330	4,434
국가민속문화재 제99호	순천 낙안읍성 서문성벽집	초가이영 잇기	7,862	3,369	11,231
국가민속문화재 제100호	순천 낙안읍성 향리택	초가이영 잇기	6,309	2,704	9,013
국가민속문화재 제234호	영광 매간당 고택	초가이영 잇기	25,200	10,800	36,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64호	영암 삼성당 고택	초가이영 잇기	23,100	9,900	33,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61호	장흥 존재 고택	초가이영 잇기	7,000	3,000	1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69호	장흥 신와고택	초가이영 잇기	15,400	6,600	22,000
명승 제80호	진도 윤림산방	초가이영 잇기	18,200	7,800	26,000
명승 제66호	두륜산 대흥사 일원	초가이영 잇기	2,100	900	3,000
국가민속문화재 제34호	경주 월암 종택	초가이영 잇기	7,000	3,000	10,000
보물 제1188호	경주 남산 천룡사지 삼층석탑	초가이영 잇기	4,900	2,100	7,000
등록문화재 제257호	봉화 척곡교회	초가이영 잇기	12,500	12,500	25,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초가이영 잇기	13,300	5,700	19,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49호	봉화 송석헌 고택	초가이영 잇기	16,100	6,900	23,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47호	봉화 설매리 3겹 까치구멍집	초가이영 잇기	20,300	8,700	29,000
등록문화재 제218호	봉화 유곡리 근대 한옥	초가이영 잇기	13,500	13,500	27,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03호	안동 송소종택	초가이영 잇기	14,700	6,300	21,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68호	영덕 충효당 종택	초가이영 잇기	4,200	1,800	6,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60호	영덕 안동권씨 옥천재사	초가이영 잇기	9,030	3,870	12,900
국가민속문화재 제271호	영덕 난고 종택	초가이영 잇기	3,640	1,560	5,200
국가민속문화재 제175호	영천 만취당 고택	초가이영 잇기	2,800	1,200	4,000
국가민속문화재 제248호	예천 남악 종택	초가이영 잇기	7,000	3,000	10,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72호	청송 성천택	초가이영 잇기	10,437	4,473	14,910
국가민속문화재 제173호	청송 후송당 고택	초가이영 잇기	8,351	3,579	11,930
국가민속문화재 제250호	청송 송소 고택	초가이영 잇기	13,097	5,613	18,710
국가민속문화재 제282-3호	사남 고택	초가이영 잇기	12,908	5,532	18,440
국가민속문화재 제282-1호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	초가이영 잇기	16,324	6,996	23,320
명승 제81호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초가이영 잇기	4,620	1,980	6,600
등록문화재 제373호	포항 오덕리 근대 한옥	초가이영 잇기	3,300	3,300	6,600
사적 제487호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초가이영 잇기	35,000	15,000	50,000